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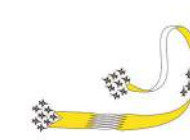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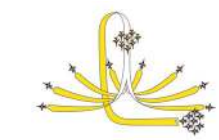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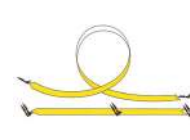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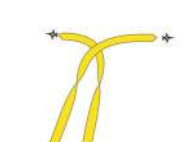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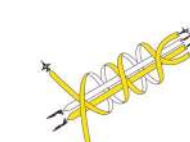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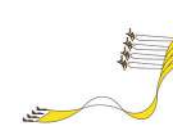




2012 Maneuvers of the Black Eagles

- | | | | | |
|---|---|---|---|---|
|  |  |  |  |  |
| 1. Change Loop | 2. Change Turn | 3. Roll | 4. Bon Ton Roulle | 5. Rainfall |
|  |  |  |  |  |
| 6. Scissor Pass | 7. Box Cross | 8. Triple Turn | 9. Goose | 10. Heart & Cupid |
|  |  |  |  |  |
| 11. Orchid | 12. 2ship High α & Loop | 13. Rollback & AB Loop | 14. Taegeuk (태극) | 15. Gourd Bottle |
|  |  |  |  |  |
| 16. Cross Break | 17. Inverted BUP | 18. Echelon Review | 19. Double Helix | 20. Snake Rolls |
|  |  |  |  | |
| 21. Dizzying Break | 22. Twist Roll | 23. Max Maneuver | 24. Victory Break | |

공군 MONTHLY MAGAZINE VOL. 410 2012. 08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임

공군



World Best
Black Eagles

GLOBAL & INSIGHT

06



- 06 경청노트 ① 블랙이글 국제 에어쇼 참가 의의와 T-50 수출전략
- 08 경청노트 ② <R2B: 리턴 투 베이스>의 키워드는 공군 그리고 사랑이다
- 10 Pioneers up above 계원 노백린
- 12 World-Wide Vision 모스키토 해안 마을에서의 의료활동
- 14 Global AF 타구르과 전투(Battle of Takur Ghar)
- 16 Leadership+ 누가 진정한 책임자일까?

COVER STORY



표지(앞) 수직급강하 기동 중의 블랙이글.
우리에 비친 조종사의 헬멧이 인상적이다.
표지(뒤) 블랙이글의 기동 도해

공군IN

18



- 18 기획특집 Wonderful! Black Eagles!
- 32 Photo Sketch 6전대 수중·수상 탐색구조훈련
- 34 포토프레임@AF 참모총장 스케치
- 36 AIR FORCE MONTHLY 2012. 08. NEWS
- 38 생각하는 그림 부디 우리의 약속을 지켜줘



월간 「공군」 8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8월 31일까지

1.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에이리언> 속편으로, 1억 3천만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의 제목은 무엇인가?
2. 독일에서 태어난 작곡가로, 독일의 깊은 숲 속에서 벌어지는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그린 <마탄의 사수>를 작곡한 사람은?
3.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이것에 자주 노출되면 폐암과 심장병, 청력장애와 정신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6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블랙호크다운 2. 서커스단 3. 알프레도, 비올레타
퀴즈 당첨자	충남 계룡시 김진영 ● 서울 강동구 박사량 ● 충남 계룡시 김태원 대구 남 구 송명수 ● 서울 관악구 최근섭 ● 충남 서산시 김민섭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미디어영상팀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najung21@hanmail.net(인터넷)
najung21@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43 / 042-552-6943

간헐 / 테리버 · 범산스파이 · 군사기밀 유출자 신고 및 인보성담은 전국 어디서나 1337 (www.dsc.mil.kr)

CULTURE 36.5

42



- 42 Hollywood English 프로메테우스
- 44 인생은 아름다워 깊은 숲속, 마법의 탄환 베버 <마탄의 사수>
- 46 Art in Everyday 초상화는 말한다 '나를 잊지 마세요'
- 48 Air-Supply 블록버스터를 보는 즐거움
- 50 Preview 8월의 문화행사

OPINION

52



-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6월호를 읽고서
- 52 Health Diary 간접흡연의 위험성
- 54 독자기고 不患人之不己知 患其不能也
- 56 책마을 그림이 많은 책

MONTHLY MAGAZINE

VOL. 410. 2012. 08

※ 공군지를 인터넷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airforce.mil.kr>)

발행일자 2012년 8월 2일(통권 제410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43, 042-552-6943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김승표
기획·편집 소령 조세영, 대위 김나청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들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6월호를 읽고서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월간 「공군」은 **[선물]**이다. 고된 군복무 속에서 내게 잠시 휴식 01
 식을 가져다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라크 자
 유작전 실패사례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세계 최대 전력을 갖추
 어도 적을 과소평가하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공군력의 중요성과 효과중심 작전 등에 관한 기획기
 사를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충남 계룡시, 김진영

02 월간 「공군」은 **[여유]**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꺼내 읽으면 여
 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군
 장병들 덕분이겠죠? 이번 호에서는 '강하고 튼튼한 공군' 특
 집 기사를 재밌게 보았습니다. 공군에서 장병들을 위해 많은 노
 렷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도 대한민국 하늘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공군의 활약을 월간
 「공군」을 통해 만나보고 싶습니다! - 서울 강동구, 박사랑

월간 「공군」은 **[SNS]**다. 이 책 한 권으로 공군의 모든 소식은 물 03
 론이고 생활상식과 인물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
 서는 '몸 튼튼한 공군'을 가장 흥미롭게 봤습니다. '짬밥'이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새로운 메뉴가 탄생되어 장병들의 입맛을 살려주었으면 하
 는 바람입니다. 또한 공군의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의장대'에
 관한 기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충남 계룡시, 김태원

04 월간 「공군」은 **[마약]**이다. 매달 공군의 재미있고 유쾌한 일
 상을 기다리게 만드는 마법의 약(마약)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
 니다. 이번 호에서는 'Max Thunder' 훈련을 가장 인상적이
 고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한국 공군에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공중급유기에 대한 내용도 좋았습니다. 공군과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 사적지에 대한 특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퇴역전투기들을 관람할 수 있는 장소도 소개받고 싶습니
 다. - 대구 남구, 송명수

월간 「공군」은 **[빙수]**다. 여름에 시원한 빙수를 찾는 것처럼 05
 월간 공군은 빙수처럼 공군에 대한 지식 갈증을 해소해 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몸 튼튼한 공군' 기획특집을 정말 재미있
 게 봤습니다. 예전부터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온 '짬밥'이라는
 용어는 공군에서는 이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에게 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공군의 여름나는 모습이 궁금합니다. 공군만의 스마트
 한 여름나기 방법은 무엇일까요? - 서울 관악구, 최근섭

06 월간 「공군」은 **[Hollywood]**이다. 매번 다양한 주제로 독자
 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모든 기사들이 다양한 감동과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호 기획특집을 읽고 맛있고 영
 양가 높은 식단을 통해 공군인의 강하고 튼튼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군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획이었습니다! 다양한 곳에 근무하고 있는 공군
 인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격오지로 알려져 있는 제주도나
 백령도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평소 생활모습을 담아보는 것
 은 어떨까요? - 충남 서산시, 김민섭



글로벌 & Insight

* Leadership+
누가 진정한 리더인가?
* Global AF
타구르과 전투(Battle of Takur Ghar)

* World-Wide Vision
포스키트 해안 마을에서의 이끈 활동

* Pioneers up above
계원 노백린

* 경쇠노트
(R2B : 리더 북 베이스)의 키워드는 공군 그리고 사령이다
클레이큰의 국제 에어쇼 참가 의미와 T-50 수를 자랑
뉴공군을 자랑

블랙이글의 국제 에어쇼 참가 의의와 T-50 수출전략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¹⁾이 얼마 전 영국에서 열린 와딩턴, 리아트 국제 에어쇼에서 ‘최우수 에어쇼상’을 받았다. 한국 공군이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 에어쇼에 참가한 것도 처음인데, 우리 손으로 만든 초음속 항공기로 완벽한 곡예비행을 선보여 세계 각국의 에어쇼팀과 겨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블랙이글의 수상은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우수성을 세계무대에 입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해외 에어쇼 데뷔까지 고했다.

블랙이글의 T-50 8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다양한 편대비행을 연출하고, 파란 하늘을 도화지 삼아 갖가지 무늬를 그리는 모습은 언제 봐도 멋있다. 시속 740km로 비행하는 항공기들은 단 1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항공기가 지나간 자리엔 네 줄의 하얀 무지개가 나타난다. ‘칼립소 기동’이니 하는 전문적 용어를 몰라도 아찔한 묘기를 즐기다 보면 저절로 블랙이글의 팬이 된다. 블랙이글의 고난이도 비행기술 30여개의 기동은 실제 전투대대에서 쓰이는 전투기동을 응용한 것이라고 한다. 서커스단의 곡예처럼 단순한 묘기를 보여주는 곡예비행과는 다른 실전 비행기술이다. 블랙이글의 수상 소식을 듣고는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로웠다. T-50을 블랙이글의 기종으로 택하자고 처음 제안한 사람이 필자였기 때문이다.

2006년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공군참모총장이었던 김성일 대장과 국방부 기자단의 점심식사를 겸한 간담회가 있었다. 그때 나는 T-50을 블랙이글의 기종으로 선택하면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공군총장에게 건의했다. 최신형 기종을 선택함으로써 블랙이글 조종사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T-50의 홍보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공군총장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나의 제안을 따라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나의 바람은 이뤄졌다. T-50을 개량한 T-50B는 스모크 장치까지 기체에 내장한 블랙이글의 기종이 됐고, 해외 에어쇼에서 기량을 맘껏 선보이며 멋진 홍보효과를 거뒀다. 이제 블랙이글은 한국 공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T-50의 해외 수출을 위한 전략적 도구 역할까지 하고 있다. 과거 T-50이 등장하기 전까지 블랙이글은 해외 에어쇼에 참가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 블랙이글 조종사들은 뛰어난 기량을 갖추고도 해외 에어쇼에 가면 다른 나라 항공기 뒷자리에 앉아서 비행체험만 해야 했다. 과거 블랙이글 기종으로 사용하던 ‘A-37B’는 미국산으로 허가 없이 분해나 조립을 할 수 없어 에어쇼 참가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돈’ 문제도 해외 에어쇼 참가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항공기를 분해한 후 화물기로 실어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수송비와 조종사들의 현지 체류비 등으로 수십억원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군이 국제 에어쇼 참가를 위해 예비용 1대를 포함해 총 9대의 항공기를 파견했다. 많은 돈이 들었지만 그 효과는 투자한 비용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수출 전략 차원에서도 잘한 결정이었다. T-50 기종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16대를 수출하기로 해 한국을 항공기 수출국 대열에 올려놓았다. 이제 블랙이글의 국제 에어쇼 무대 활약으로 T-50은 전 세계 바이어들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블랙이글의 전신은 ‘블루 사브레’다. 공군은 1962년 F-86 4대로 특수비행팀을 만들었다. 1967년에는 항공기를 F-5A

1) 2012년 8월부터 Black Eagles의 한글 명칭을 “블랙이글스”가 아닌 “블랙이글”로 표기합니다.

로 바꾸면서 현재와 같은 블랙이글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이후 기종은 A-37로 교체됐고, 2009년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으로 다시 바뀌었다. 블랙이글이 기량을 겨루는 경쟁자들은 미국 공군의 썬더버드와 해군의 블루엔젤스, 러시아 공군의 러시아나이츠 등 굴지의 비행팀들이다.

'하늘의 예술가'로 불리는 블랙이글의 조종사들은 공군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 블랙이글과 같은 특수비행팀의 기량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서 그 나라 공군력의 척도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특수비행팀의 구성원은 최고 조종사들로 이뤄지는 게 통례다. 무한경쟁시대에 블랙이글의 조종사들은 세 일즈맨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T-50의 해외수출 첨병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음속을 넘나드는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들을 이슬아슬하게 교차시키면서 생명을 담보로 한 고난도 기술을 구사한다.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블랙이글 조종사들은 목숨을 건 T-50 세일즈맨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T-50은 1대당 수출단가가 250억원 정도로, 50만원 가격의 휴대폰 5만대, 중형 승용차 1,250대를 수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최첨단의 과학기술제품으로서 T-50은 중량(kg)당 가격(만원)이 자동차의 440배에 달한다. 그런만큼 T-50은 경제적 부가가치와 새로운 수출상품으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문제는 국제 방위산업 시장에서 한국산 항공기 수출 경험이 일천하고 대외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현실의 벽'이다. 이 난관을 뚫으려면 대부분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는 방산시장에서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도 성공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을 노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T-50 고등훈련기뿐만 아니라 F-5 전투기를 대체할 전투기 시장에 T-50을 공격형 전투기로 개발한 FA-50을 투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훈련기 시장과 경공격기 시장을 동시에 노리라는 것이다.

이같은 T-50 수출을 위해서는 이미지 메이킹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 시장에서 한류를 앞세워 우리 상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듯이, 항공기 시장에서도 T-50이 자연스럽게 회자되면서 수출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군은 T-50 수출을 위해 해병대에서 복무 중인 현빈(본명 김태평)을 '방산수출 홍보특사'로 활용하기까지 했겠는가. 군은 한류스타가 군복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T-50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국군의 날 행사에 현빈을 파견해 나름 효과를 보기도 했다. 올해는 블랙이글이 우리 기술로 만든 날개를 달고 전 세계 에어쇼 현장을 누비며 국산 초음속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AF**





R2B:리턴투베이스의 키워드는 공군 그리고 사랑이다



드디어 작전명 <R2B: 리턴 투 베이스>가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처음부터 화려한 모습이라고 한 것은 바로 블랙이글 때문이었다. 영화의 시작은 화면을 가득 채운 블랙이글의 위용이었다. 잘 계획된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 블랙이글은 현란하게 또는 아찔한 묘기를 유감없이 펼쳐 보였다. 그것은 관객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효과를 가져왔다.

나는 내심 안도했다. 그것은 책을 사서 처음 읽을 때와 같기 때문이다. 책을 펼쳤을 때 재미없으면 몇 장 읽다가 덮는다. 그리고 그 책은 언제 읽힐지 알 수 없다. 영화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첫 장면이 중요한 것이다.

블랙이글의 에어쇼는 공군이 가진 모든 역량을 한눈에 보여주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탓에 화면을 압도할 수 있었고 단번에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 욕심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화면 가득 펼쳐진 에어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였다. 우리의 공군 블랙이글이 처음으로 해외 국제 에어쇼에 참가하여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알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구구절절 그런 설명이 없어도 화면 속 장면만 보고 관객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말이다.

공군과 전투기는 하늘에서 그 빛을 발한다. 하늘 위에서 공군이 가진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그렇기에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려면 고도의 기술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면에서 <R2B: 리턴 투 베이스>는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활용한 편이였다.

고공액션이 그러했다. 실제 상황 같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고 잠시도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스피드와 긴박감이 느껴졌다. 최고의 긴박감은 북한의 등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설정도 자연스러웠다. 왜냐하면 요즘 북한 공군의 전투기 출격 횟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남북의 대치 상황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다. 지난 봄부터 군사경계선 가까운 개성 상공까지 남하하는 북한 공군의 전투기 때문에 우리 공군 전투기가 즉각 출격해서 방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실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영화가 가진 힘이다. 그리고 전술조치선에 근접할 경우 즉각 출격하는 우리 공군 전투기의 역할이 대두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영화 속 장면에만 흠뻑 빠져 있던 관객들이 비로소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는 순간이 바로 그 속에 있었다.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분단국가라는 엄연한 현실을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앞에 가장 먼저 나서서 온몸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 공군과 전투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은 역시 공군이기 때문이다.

영화 속에서 우리는 주인공을 따라 함께 사랑을 나눴고 웃음과 눈물도 공유했다. 두 주인공인 조종사와 정비사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축으로 펼쳐지는 공군의 세계가 영화 속에 있었다. 부하를 믿고 챙겨주는 비행단장과 오로지 책임감 하나로 일관하는 대대장과 좁은 관사보다 몇 배나 더 크고 애뜻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일반 장병들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소소한 재밌거리와 책에서나 느낄 수 있는 서정성이 패러글라이딩을 통해 오롯이 담겨 있는 <R2B: 리턴 투 베이스>.

그러나 그중에서 오래도록 내 마음을 잡고 있는 장면 하나가 있었다. 임무 수행을 하던 전투기 조종사가 추락 직전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장면에서 나는 그만 몸이 굳어버렸다.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아주 짧은 몇 초 사이에 사랑했던 사람을 떨어리는 조종사, 그 모습에는 우리 공군의 조종사가 있었다.

R2B: 리턴투베이스

이제 우리의 바람은 분명해졌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가 아닌 현실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은 공군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다. 사람이기에 사랑, 갈등, 좌절, 이별과 고뇌를 겪는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그들은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과 전투기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것은 그들의 숙명임을 보여주는 명 장면이였다. 그 장면이 지나간 뒤에도 나는 숨을 크게 쉴 수 없었고 여전히 몸이 경직된 채 영화를 봐야 했다.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여러 얼굴들이 스쳐지나갔다. 6·25 직후부터 지금 이순간까지 우리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수많은 조종사들과 그리고 공중근무자들의 송고한 얼굴들이였다. 비록 사진 속 얼굴들이었지만 그리고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나는 영공방위를 위해 몸 바쳤던 그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육신은 보이지 않지만 정신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 아니한가.

불구덩이를 매단 채 하늘로 솟는 전투기와 길게 이어진 광음은 조종사의 열정이고 가슴 뛰는 애국심이다. 조종사는 푸른 하늘을 닮은 희망을 우리 모두에게 선사하고자 오늘도 하늘로 솟는다. 구름 같은 안락함을 지키기 위해 숨을 헐떡이며 땀을 흘린다. 그런데 참 아쉽다. 딱 한 장면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투기가 하늘로 솟은 뒤 길게 뻗은 활주로 위에 무수히 찍힌 바퀴자국을 보여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활주로의 검은 바퀴자국을 본다면 우리 모두 경건해지고 숙연해질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래도 우리는 하늘을 지키는 공군과 조종사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을 것이다. 영화 속 주인공이 외친 것처럼 우리 모두 하늘의 모든 조종사가 언제나 무사 귀환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R2B: 리턴투베이스

우리가 영화관을 찾아야 하는 이유.

그 속에는 분명 공군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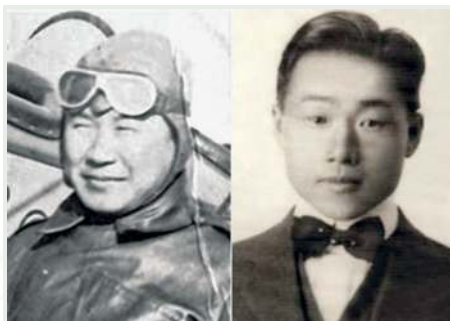
* 본 글은 사전시사회 참석 후 작성한 기고문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기원을 한 세대 앞당긴 항공선각자

계원 노백린

(1875. 1. 10~1926. 1. 22)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해 공군력 육성을 주장했던 선생은 ‘항공독립운동’의 선각자였다.

“하늘을 지배하라.” 되찾을 조국하늘을 향한 노백린 선생의 외침은 미래 조국하늘의 북극성이 되었다.

- 이윤식(소설가, 최용덕 생애와 사상 저자)

계원 노백린은 황해도 송화의 시골 선비집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침착하고 인물이 수려했으며 성격이 호탕하였다. 14세 때까지 한문 수학에 정진하였고 21세 때인 1895년에 정부유학생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도쿄의 경응의숙과 성성학교를 졸업한 뒤 1899년에 일본 육사 11기로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1900년 10월 귀국하여 육군참위로 임관, 한국무관학교 보병과 교관으로 군대 육성에 진력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시찰단원으로 대련, 여순 등지를 시찰한 후 부위, 정위, 참령, 부령, 정령으로 승진되어 육군무관학교장을 비롯 헌병대장, 육군 연성학교장을 역임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 강제체결 후 이토 히로부미가 한측 고관들을 초청한 연회에서 계원은 이완용, 송병준 등 역신들 앞으로 나아가, 나라 팔아먹은 개라는 의미로 “워리 워리”하고 소리내어 불렀는데, 이를 본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칼을 빼들고 덤비려 하자 계원도 칼을 빼어 대결하려 하였다. 히로부미가 황급히 요시미치를 만류하여 결투는 겨우 면하였지만 연회는 파연되고 말았다. 1907년 8월 1일 한국군 해산으로 계원은 정령으로 전역하였다. 도산 안창호는 계원과 전덕기, 양기탁, 이동녕 등과 함께 비밀결사 신민회를 조직하여 군권회복을 도모하였다.

1910년 8월 29일 국권을 침탈한 일제는 계원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협력을 강요했지만 선생은 이를 의연하게 거절하며 새로운 활로모색에 부심하였다. 1915년 7월 일제의 눈을 피해 중국 시찰차 상해로 간 계원은 배편으로 미국 망명길에 올라 하와이 오아후 가할루 지방에서 박용만과 함께 국민군단을 창설하고 독립군 양성 및 독립사상 양양 고취에 힘썼다.

1916년 계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평양시보」를 창간하여 조국의 실상을 전파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사상을 계몽하였다. 그는 장차 다가올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하여 대규모 병력보유가 불가한 상황에서 육군보다는 소수정예로 적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공군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및 중국 등지에서 소수정예의 공군력을 육성하였다가 독립전쟁시기가 무르익으면 일시에 그들을 동원하여 일본에 전략적 치명타를 가한다는 전략구상이었다. 그는 앞으로의 전쟁은 하늘에서 싸우는 공군력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항공전략사상을 강조하며 한인 비행사 양성의 중요성을 주변인 사들에게 설파하였다. 이에 공감한 국민회 총무 곽임대는 월 600불의 재정지원을 약속했고 1919년 1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쌀농사 왕이었던 김종린도 윌로우스(Willows)의 레드우드비행장 항공시설 일체와 월 3,000불의 경비지원을 약속하였다.

현지 미국인들의 우려 섞인 반대가 있었지만 계원은 이들을 설득하였고, 한인 지사들을 독려하여, 마침내 1920년 2월 20일 비행장이 확보되었고, 김종린 총재, 노백린 총무, 곽임대 훈련생감독관으로 편성된 비행사양성소가 설립되었다. 그해 5월에는 연습용항공기 2대와 노정민, 박낙선, 우병욱, 오임하, 이용선, 이초 등 6명의 비행사를 확보하였다. 곽임대 선생의 회고록 ‘못잊어 화려강산’에 의하면 당시 15명의 훈련생들은 “반드시 동경에 날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월로우스의 한인비행학교 훈련생들. 이들은 노백린 장군의 지도하에 광복군 공군이 되기 위해 교육받았다.

쑥대밭을 만들자”는 결의를 다지며 훈련에 임했다고 한다. 그 후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기로 한 계원과 젊은 비행사들은 훈련에 전념하여 1920년 7월 7일, 첫 졸업생 25명을 배출하였다. 이들은 모두 비행술을 배워 이를 무장독립투쟁에 활용한다는 각오였다. 항공기도 5대로 증가되었고, 1922년 6월의 학생수는 41명에 이르렀으며 1923년에만 11명의 비행사가 배출되었다. 그들은 조국 독립사상에 투철하였으며 사기가 충천하였다.

그 시절 외국에서 우리 힘으로 비행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계원의 우국충정과 흔들림 없는 리더십은 현지 미국인들과 한인 지사들을 감복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캘리포니아 월로우스 레드우드비행장의 한인 비행사양성소는 고국의 독립전쟁에 대비하여 해외에서 한인 애국지사들에 의해 운영된 최초의 항일비행군단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나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1919년 2월 8일 동경유학생 중심의 독립선언에 이은 3·1 독립운동의 결과 온 국민의 결집된 노력으로 국내,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는데, 4월 23일 서울에서 13도 대표가 모여 조직한 한성임시정부에서 계원은 군무총장으로 선임되었다. 상해임시정부에서도 계원은 군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이동휘, 유동열, 신채호, 박용만 등과 함께 독립군 육성에 진력하였다. 미국에 있던 계원은 1920년 1월에 대한민국 군대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뜻있는 국민들이 군에 지원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군무부포고 제1호를 발령하였다.

1921년 6월에는 중국 북경에서 제2보합단에 가입하여 군임장을 맡아 활동하였고, 1922년 7월에 계원은 안창호, 여운형, 이시영, 조소앙, 윤기섭 등과 함께 시사책진회를 조직하였으며, 임시정부 국무총리로서 1년 10개월간 단합된 국정운영 및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24년 5월 30일에 다시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어 군무발전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였다.

계원은 말년에 육군정령 제복을 어루만지며 한국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복돋웠고 “정복으로 말타고 남대문에 입성하면 참으로 좋겠다”면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주변 사람들을 일깨웠다.

계원은 고국의 독립을 위해 해외를 전전하며 민족의 단합과 잠재역량을 일깨우던 중 상해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요양하다가 1926년 1월 22일 5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상해 정안사로의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가, 1993년 서울 국립현충원 임시정부 묘역으로 이장되었고, 이전인 1962년에는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AF**



Mosquito Coast Medicine

모스키토 해안 마을에서의 의료활동

사이라 바네사 블라카우스(Saira Vanesa Blackaus) 씨는 타이 르 (Thai Le) 소령이 그녀의 세 살짜리 아들 토마스에게 주사기를 통해 구충제를 먹이려 하자 “이 약을 먹으면 괜찮아 질거야”라며 우는 아이를 달랬다.

타이 르 소령이 소속된 예방의무부대는 온두라스 동부에서 실시된 합동 의무준비태세 훈련 중, 첫 번째 임무로 Batalla 및 Wawina 마을에서 주민들을 돌보았다. 이 두 곳은 온두라스의 Gracias a Dios 주에 속한 마을로서 서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온두라스의 Soto Cano 공군기지에 파병된 13명의 공군장병을 포함해 총 55명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 - 브라보 의무반은 온두라스의 보건부 및 군과 협력하여 온두라스의 두 마을 학교에서 전문의료활동을 펼쳤다.

블라카우스 씨는 세 명의 자녀를 데리고 30분이 넘는 불볕 더위 속을 걸어 Wawina의 학교에 도착했다. Wawina 지역의 주민들은 가족이 아프면 보트를 타고 두 시간 가량 Patuca 강을 건너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이 위치한 Ahuas를 찾아가야 한다.



2

1 합동 태스크포스-브라보의 의무요원과 통역사(우측)가 의무 훈련을 위해 외진 Wawina 마을로 비행하고 있다. 2 온두라스의 Soto Cano 공군기지로 파병된 합동 태스크포스-브라보 의무반 미군 요원들이 30분 비행거리에 있는 Wawina 지방으로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 이들은 예방약 처방, 건강검진, 의사진료 및 치과 진료 등을 제공했다. 3 온두라스 와위니아 마을에서, 데니엘라 펠드하우스(Daniela Feldhausen) 중위(우측)가 한 어린 소년의 귀를 살펴보고 있다. 4 합동 태스크포스-브라보의 의무반 의사가 진료를 하는 동안 경계 보초를 서고 있는 온두라스 군인들을 쳐다보는 어린이들 5 온두라스의 Soto Cano 공군기지에 합동 태스크포스-브라보의 의무요원으로 파병된 미군 장병들이 의료 및 공급품 등을 쟁겨 해안가의 헬리콥터로 탑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Battalla 지방 마을에서 이틀에 걸쳐 533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30살의 아이 어머니는 “저희 동네에서는 의사를 찾기 힘듭니다. 의사도 없을 뿐더러, 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며 육군 통역병 Douglas Sanchez에게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다.

블라카우스 씨와 그녀의 자녀들은 온두라스 예방의학 훈련책임자인 주임원사 루이스 알론조 드마니(Luis Alonso Dhmani) 씨로부터 위생 및 기타 보건 생활에 대해 45분 가량 교육을 받았다. 주임원사 드마니 씨는 의무훈련 중 온두라스의 여러 마을을 방문한다. 그는 이러한 마을을 돌면서 극도로 빈곤하고, 병든 이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주임원사 드마니 씨는 “이곳보다 더 처참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의무 준비태세 훈련이 없었다면, 작고 외진 동네에서는 영양실조와 질병 상황이 더욱 심각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의무 준비태세 훈련을 실시한 곳에서는 일부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1993년 이래, 의무훈련을 통해 약 321,000명의 환자와 65,000명의 치과환자가 치료를 받았고, 2011년 한해에만 약 15,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일반 의무훈련과 더불어 의무반의 수술팀은 일주일에 3회 가량 인근지역에서 필요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훈련은 의무반의 인도적 임무수행뿐 아니라, 부대원들의 훈련수준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합동 태스크포스-브라보 의무반장인 매튜 렛키(Matthew Rettke) 대령은 “열악한 지역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훈련은 (의무요원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부대원들에게 임무수행을 위한 신속한 준비 및 이동, 그리고 우리 합동 태스크포스-브라보의 주요 임무인 재난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열대의학이나, 치료되지 않은 유행성 질병 또는 질환에 대해 배우는 등 처참한 실제 상황을 통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온두라스의 파트너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그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치과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3시간 반 정도를 이동해야 한다. 때문에 치과진료를 받는 환자의 대부분은 평생 치과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치과 의사 Amador 씨는 “미군의 의무 준비태세 훈련은 지역사회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특히 기껏해야 간호사 몇 명에다 창고에 있는 약이란 타이레놀 밖에 없는 마을에서는 더욱 그렇죠.”라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저희는 Mosquito 해안 지역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Wawina 마을 역시 이러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도 도시에서 매우 동떨어져 있는 외딴 지역인데다가 보건 의료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마친 할머니 한 분이 학교를 떠나며 모든 공군 장병 및 요원들의 손을 붙잡으며 연신 외쳤다. “부에노스 디아스 그라시아스!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AF



5

LEADERSHIP

누가 진정한 책임자일까?



작게는 팀이나 부서, 크게는 조직을 이끌어 본 사람이라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맡길 때 확실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현실에 많이 부딪힐 것이다. 역량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도무지 책임감이 없어 맡겨 놓고도 조마조마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실하고 책임감은 있는데 업무능력에 있어서는 어딘지 불안하다면, 두 경우 모두 관리자로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중동지역에 진출해 있는 어느 해외건설업체 사장이 털어놓은 고민이 바로 그러했다. 사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나, 책임자급 직원을 교체해야 할 때 이런 딜레마에 빠져 보지 않은 회사는 없을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던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하는데

독일의 전설적인 지휘자 오토 클렘페러는 “나쁜 지휘자는 있어도 나쁜 오케스트라는 없다.”라는 표현으로 리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연주상의 미세한 차이를 확연히 구별해낸다고 한다. 80명에서 100여명에 이르는 단원들이 제각각 알아서 할 일은 분명 아니다. 하나의 지휘봉 아래서 그 차이는 갈라지게 되어 있다.

자연 혈연, 선배 후배, 상무 줄 전무 줄 타고 해외로 나갔다가, 어떤 사람은 지사를 견고한 발판 위에 세워 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변방의 골칫거리 정도로 지사의 운명을 바꿔 버리기까지 한다. 과연 어떤 사람을 보내야 본인도 살고 회사도 살고, CEO 몸값도 올라가고, 그리고 국가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앞서의 사장은 두 명의 부장 중에서 현지 지사를 설립할 지사장을 선발해야 하는데, 몹시 혼란스럽다는 것이었다.

‘갑’ 부장은 정직하고 근면하며 착실한 성품의 소유자이나 해외 경험과 건설기술 역량이 부족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반면 ‘을’ 부장은 대학에서의 전공도 건설 분야이고 다년간의 해외건설 경험으로 역량은 대단하나, 워낙 술을 좋아하고 허풍이 심한 데다 비용을 거저 청구하는 등 성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장은 “지사 설립을 위한 총책임자로는 아무래도 ‘을’ 이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고 어느 정도 마음을 굳혀 놓고 있었다. 약간의 스캔들은 눈감아 줄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나는 다그쳐 물었다. “‘을’을 신

뢰할 수 있느냐?”고. 그는 아니라고 했다. “그럼 ‘갑’을 선택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역시 믿음이 안 간다는 것이다.

결국 그 사장은 둘 다 신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제3의 인물을 찾기로 했다. 조물주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지만, 필요한 사람을 군데군데 숨겨 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 아닐까. 결국 ‘갑’이나 ‘을’에 비해 그들의 특성에서 조금씩은 달했지만 두 가지를 잘 갖춘 사람으로 찾을 수 있었고, 그는 기대 이상으로 지사 설립과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한다.

성과와 역량 고루 갖춘 리더가 그리운 시대

나는 강의 중에 자주, 여러분들이라면 ‘갑’과 ‘을’ 둘 중에서 누구를 택하겠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70~80%가 ‘갑’을, 20~30%가 ‘을’을 선택하겠다고 한다. ‘갑’을 보내면 지사 설립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물으면 고개를 가우뚱하며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라고 대답한다. ‘을’을 선택한 사람도 지사 설립이 끝나면 ‘갑’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급진적인 산업화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역량을 강조해 왔다. 기업이나 조직에서 인재를 뽑을 때도 도덕적인 성품은 거의 무시되다시피 했다. 학벌을 먼저 따지고, 몇 시간의 시험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보니 교육 또한 역량 강화에만 치우쳐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화 이전 우리네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종교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선량할 수 있을까?

배움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도덕적이고 성숙할 수 있을까?

끼니도 충분치 않는데 어찌 이렇게 느긋할 수 있을까?

개화기의 서양 선교사 게일(James S. Gale)이 본 한국인의 모습은 ‘갑’의 성향을 넉넉히 갖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고 했다. 많은 부작용을 겪으면서 이제야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신뢰 받지 못한 기업은 결국에는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환경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조직은 생존의 위협까지 느껴야 할 것이다.

그 사장은 이 경험으로 인해 성품과 역량, 두 가지 자질이 바로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 신뢰도의 바탕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사원을 선발하는 시각이 크게 달라졌다. 인사는 만사임을 깊이 깨달으니 뜻밖에도 신뢰성을 갖춘 좋은 인재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문화까지도 바뀌더라도 후회하는 모습이였다. **AF**



테러와의 전쟁 ③

타구르과 전투

Battle of Takur Ghar

2001년 9월 11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8시 45분,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북쪽 건물에 여객기 한 대가 충돌한다. 뒤이어 또 다른 여객기 한 대가 남쪽 건물과 충돌하고, 오전 9시 40분 워싱턴 미 국방부 건물에도 여객기 한 대가 충돌한다. 오전 9시 59분, 세계무역센터 남쪽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10시 30분에는 북쪽 건물도 붕괴된다. 블록버스터 영화(Blockbuster Movie) 속의 한 장면 같았던 이날의 테러로, 90여개국 3,000여명의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다음날인 9월 12일 미 정부는 이 테러사건의 배후로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과 그의 추종 조직인 알 카에다(Al-Qaeda)를 지목하고, 길고 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대테러 전쟁의 시작

9·11테러가 발생한 다음날인 9월 12일, 조지 W. 부시(George Walker Bush) 前 대통령은 9·11 테러를 일으킨 빈 라덴과 알 카에다에 대해 사전 경고 없이 보복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 정부는 아프간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에게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를 넘길 것을 요청했지만, 탈레반은 이를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거절했다. 9월 15일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¹의 준 군사조직인 SAD(Special Activities Division)와 일명 그린 베레(Green Berets)로 불리는 미 육군 특수전단이 아프간에 신속하게 잠입한다. 이들 부대에는 미 공군 소속의 공정통제사²들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를 비호하고 있는 탈레반(Taliban)³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아프간 내의 탈레반 저항세력인 북부동맹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당시 북부동맹은 러시아와 이란의 원조를 받으며, 탈레반과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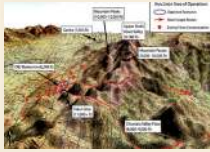
공습에 무너진 탈레반

10월 7일 미국은 영국과 함께 아프간내의 탈레반 주요 거점에 대해 공습을 시작한다. 인도양의 미 해군 함정에서 발사된 50여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알 카에다의 훈련캠프와 탈레반의 군사시설에 떨어졌다. 또한 이 공습에는 미 공군의 폭격기와 해군의 함재기들이 동원되기도 했다. 미군의 지원을 받는 북부동맹도 지상에서 작전을 시작한다. CIA는 북부동맹에게 막대한 군사금을 지원했고, 미 육군 특수전단은 북부동맹군을 이끌고 최전선에서 탈레반과 싸웠다. 탈레반과의 전투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것은, 미 공군의 공정통제사들이었다. 공정통제사들은 지상에서 공습에 나선 폭격기와 전투기들을 유도하여, 폭탄이 목표물에 정확하게 떨어지게 했다. 특히 공정통제사의 레이저표적지시기 유도하에 떨어지는 스마트 폭탄⁴은 높은명중률로 인해, 탈레반을 줄행랑치게 만들었다.



무혈입성 (無血入城)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만 5천여명의 북부동맹군은 아프간 북부의 헤라트와 북동부의 마자르 이 샤리프, 동부의 잘랄라바드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11월 13일 북부동맹의 선발대는 아프간의 수도 카불에 무혈입성했고, 불과 몇 시간에 카불은 북부동맹에 점령되었다. 당시 북부동맹의 빠른 진격속도에 대테러전쟁의 당사자였던 미국도 놀라고 말았다. 탈레반과 알 카에다는 북부동맹에 쫓겨 아프간 남부로 철수했다. 탈레반은 아프간 남부 도시 칸다하르에서 최후의 일전을 준비했다. 그러나 미 특수전 병력과 해병대가 칸다하르 공항을 점령하자, 2002년 2월 칸다하르를 포기하고 파키스탄 접경지역의 토라보라로 퇴각한다. 토라보라는 험준한 산악지대로 과거 구소련과의 전쟁시절 무자헤딘의 본거지로 사용되었다. 2001년 12월 델타포스를 비롯한 미군과 영국군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 이 지역에 투입되었고, 미 공군의 B-52, B-1B, B-2 폭격기들은 빈 라덴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동굴에 스마트 폭탄을 퍼부었다.



아나콘다 작전

탈레반은 북부동맹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공격으로 날이 갈수록 세력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9·11테러의 주역인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의 행방은 묘연했다. 결국 미군은 이들을 한번에 잡는다는 목표하에 아나콘다 작전(Operation Anaconda)을 계획하게 된다. 아나콘다 작전의 핵심은 오사마 빈 라덴을 포함한 알 카에다의 세력을 일망타진하고, 만약 도주하더라도 항공지원을 통해 궤멸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 육군 제10산악사단과 제101공수사단으로 구성된 TF 락카산(Rakkasans)이 구성된다. 아프간전 최초로 미 정규군이 대규모 투입된 아나콘다 작전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작된다. 오전 6시 30분 TF 락카산을 태운 CH-47 수송헬기 제1파가 목표지점에 도착한다. 일부 착륙지점에서는 탈레반과 알 카에다가 완강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이들의 저항은 압도적인 미군의 항공전력에 의해 제압되었다.



머피의 법칙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아나콘다 작전은, 기대와 달리 머피의 법칙⁵이 적용되면서 꼬여가기 시작한다. TF 락카산과 함께 작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특수전부대가 오폭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었고, TF 락카산의 일부 병력은 탈레반과 알 카에다의 공격에 고립되고 만다. 또한 항공지원은 계속되었지만 이전과 달리 정확한 폭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군 지휘부는 항공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특수전 부대를 증파하기로 결정하고, 데브그루(DEVGRU)⁶ 1개팀을 차출한다. 3월 4일 새벽 3시 이들을 태운 미 육군 제160특수전항공연대 소속의 MH-47 특수전 수송헬기가 착륙지점인 타구르과(Takur Ghar)에 도착한다. 타구르과는 아나콘다 작전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감초고지⁷였다. MH-47 특수전 수송헬기가 도착하기 전, 미 공군의 AC-130 건십(Gunship)이 착륙지점을 정찰했지만 적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미공으로 빠져드는 구출작전

그러나 헬기가 착륙지점에 내리는 순간, 총격과 함께 RPG-7 대전차 로켓포가 불을 뿜었고 RPG-7 대전차 로켓은 동체를 관통했다. 결국 헬기는 원래 착륙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불시착하고, 이 과정에서 데브그루 요원 한 명이 지상에 떨어졌다. 다행히도 조종사와 탑승자들은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이 지장은 없었다. 이들은 지상에 떨어진 데브그루 요원을 구출하기 위해 나섰지만, 적들의 완강한 저항에 밀려 후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미 공군 소속의 공정통제사가 적의 총격에 사망하게 된다. 프레데터 무인기로 헬기의 추락을 확인한 미군 지휘부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신속하게 병력을 파견한다. 또 다른 데브그루팀을 태운 MH-47 특수전 수송헬기가 도착해 병력을 내리는데 성공하지만, 적들의 강력한 화력에 밀려 움짱달짝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뒤이어 미 육군 레인저(Ranger) 부대를 태운 MH-47 특수전 수송헬기가 도착하지만, 적의 중기관총에 피격되어 추락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된 채 고립되고 만다.



전세를 역전시킨 공중통제사들

불행 중 다행으로 또 다른 레인저 부대를 태운 MH-47 특수전 수송헬기는 목표지점에서 800m 떨어진 지역에 대원들을 안전하게 내려놓는데 성공한다. 그 사이 고립된 팀들은 적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각 팀에 속해 있던 공정통제사들은 부상자들을 치료하며, 공중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레인저 부대에 속해 있던 미 공군 공정통제사 겐 브라운(Gabe Brown) 하사는 현장 상공에 도착한 F-15E 전투기와 교신하며 항공지원을 실시했다. 당시 F-15E 전투기는 레이저 유도 폭탄을 장착하고 있었다. 레이저 유도 폭탄은 높은 정확도와 강력한 위력을 자랑했지만, 자칫 아군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결국 겐 브라운 하사는 F-15E 전투기에 장착된 20mm 발칸포로 항공지원을 요청했고, F-15E 전투기들은 저공비행을 실시하며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기총사격을 실시했다. 그러나 기총사격은 효과가 미미했고, 겐 브라운 하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레이저 유도 폭탄의 투하를 요청한다.

맷으며...

F-15E 전투기에서 투하된 레이저 유도 폭탄 한 발은 적의 근거지를 일격에 박살내었고, 무장형 프레데터 무인기도 동원되어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했다. 뒤이어 레인저 부대원들은 적 진지에 공격을 시작했고, 후속 레인저 부대원들이 도착하면서 작전은 서서히 마무리 되어 간다. 미군은 이날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전투가 벌어졌던 타구르과를, MH-47 특수전 수송헬기에서 떨어져 홀로 용감히 싸운 데브그루 요원 닐 C. 로버츠(Neil C. Roberts)하사의 이름을 따 로버츠 고지로 명명했다. 타구르과 전투에서 미군은 8명의 사상자를 내고, 미군은 블랙호크 다운으로 잘 알려진 모가디슈 전투(Battle of Mogadishu) 이후 다시 한 번 하이트크 전투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 1) 미국중앙정보국
- 2) 공군의 특수부대로 공정작전에 앞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 항공기가 제대로 병력과 장비를 투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임무를 맡는다.
- 3) 1994년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주(州)에서 결성된 무장 이슬람 정치단체로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한 세력
- 4) 1972년부터 미국에서 실용화된 정밀유도병기의 한 종류. 대표적인 스마트 폭탄으로는 페이브웨이(Paveway)와 제이담(JDAM) 등이 있다.
- 5)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갈수록 꼬이기만 하는 경우에 쓰는 용어
- 6) 씰(SEAL) 6팀으로 불리는 이 부대는 미군의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이다. 지난 2011년 알 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을 사살한 부대로 널리 알려져 있다.
- 7) 적의 활동을 살피기에 적합하도록 주변이 두루 내려다보이는 고지

세계를 놀라게 하다! Black Eagles!

70일간의 대장정

블랙이글 에어쇼 커튼콜

* 기획특집

6전대 수중·수상 탐색구조훈련

* Photo Sketch

참모총장 스케치

* 포토프레임@AF

2012. 08. NEWS

* Air Force Monthly

부디 우리의 약속을 지켜줘

* 생각하는 그림

공군IN

세계를 놀라게 하다! 대한민국의 대표 특수비행팀

Black Eagles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자동차 한 대 없던 1949년 10월, 연락기 20대로 공군을 창설했을 때, 이미 영국은 폭격기와 전투기를 보유한 항공 강국이었습니다. 영국은 또한 1918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군을 독립시킨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60여년이 지나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이 뿌리 깊은 공군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하늘을 누볐습니다. 2012년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영국에서 대한민국이 거둔 첫 번째 금메달은 태권도도, 사격도, 양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대표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이 두 개의 에어쇼에서 거둔 쾌거였습니다. 구국의 일념과 맨주먹으로 시작한 우리 공군이 국산 초음속기를 운용하는 에어쇼팀을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 보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월간 공군과 함께 리플레이해보시겠습니까?





“기종 교체 이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실력을 쌓는 팀은 드물죠”
 블랙이글의 공연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정교해서 보는 내내 감탄했어요. 또한 항공기 도장 디자인도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큰 에어쇼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는데, 한국의 블랙이글이 처음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어요. T-50B 기종을 교체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단기간에 이러한 실력을 갖췄다는 것이 정말 놀라합니다. 우리 영국에 와서 이런 멋진 공연을 펼쳐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Stephen Gray
(영국, 41세)



Joanne Warren
(영국, 39세)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준 블랙이글”
 너무 짜릿해서 온몸을 들썩이면서 공연을 봤어요. 너무나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전 자제품이 훌륭한 나라였고, 남북이 대치하는 휴전국였습니다. 블랙이글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제 한국은 블랙이글과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훌륭한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점이 너무 놀라웠고, 하지만 강한 선진국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세계 한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준 블랙이글! 최고!



Joe Broadwood
(영국, 2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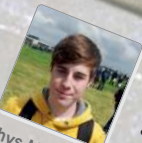
“한국에 가서 블랙이글 공연을 보고싶어요”
 블랙이글은 공연 실력도 완벽하지만 운까지 따라주는 팀인 것 같아요. 블랙이글의 공연 시간이 되면 날씨가 항상 좋아지니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손님들에 대한 영국의 배려라고 해야 할까요? ^^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블랙이글이 펼치는 공연을 한국에 가서 보고 싶어졌습니다!



Jakob Hogberg
(스웨덴, 37세,
테스트 파일럿)

“이런 에어쇼팀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엄청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겠죠?”

굉장히 잘하는 팀이에요. 같은 조종사로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생소하지만, 이런 에어쇼팀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엄청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Rhys Mavle
(영국, 17세)

“레드애로우보다 품격 있는 공연”

한국에 대해서는 대기업 몇 군데 정도 밖에는 몰랐어요. 우리의 영국의 자랑 레드애로우보다 나은 에어쇼팀이 있었다니, 정말 굉장해요. 한국의 항공력 수준이 이 정도로 성장했는지는 몰랐어요. 다음 에어쇼에도 꼭 참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Kinsley Mavle
(영국, 47세)

“다른 팀들을 압도하는 화려한 공연”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다른 모든 팀들을 압도하는 비행이었어요. 나처럼 나이가 제법 있는 영국인들에게 여전히 한국은 전쟁으로 고통받던 나라, 우방국들의 도움으로 힘들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나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이글을 보고 이렇게 홍보팀들과도 마주하게 되면서 내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이란 나라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annah George
(영국, 24세)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어졌어요”

와우! 당장이라도 조종사들에게 달려가 사인을 받고 싶네요. 우리 레드애로우도 멋지지만, 블랙이글만큼은 못한 것 같아요.(웃음) 외교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휴전국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강했었는데 블랙이글의 공연을 보고나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블랙이글처럼 한국 남자들도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Vandersippe Thibaud
(좌측, 프랑스, 26세, 라파엘팀 정비사)

“T-50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블랙이글이 무조건 1등입니다. 팀원간의 호흡이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는 할말이 없네요. 저 이 정비사이기 때문에 항공기에 관심이 갑니다. T-50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드컵 4강에 오를 때도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이제 블랙이글의 한국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Alexander Crab
(독일, 32세, 파일럿)

“블랙이글은 독일 자체 투표에서도 단연 1위”

이번 에어쇼에 참가한 팀 중에 어떤 팀이 가장 잘하는 팀인지를 우리 독일 파일럿들끼리 자체 투표한적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블랙이글이 1위였어요. DVD를 준다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웃음) 개인적으로는 솔로 기동을 펼치는 조종사가 굉장이 인상적이었어요.



“검은 복장만 봐도 눈길이 갑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멋진 사람들이 블랙이글 아닐까요? 검정색 복장을 한 사람들만 봐도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네요. 너무나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꼭 내년에도 와줬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겠습니다!



Lisa Masters
 (영국, 26세)



“레드애로우가 돼서 블랙이글과 겨루고 싶어요”
 블랙이글 공연을 보고 조종사에 대한 동경이 생겼습니다. 정말 매혹적이고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나도 현재는 생도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레드애로우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 블랙이글과 꼭 기량을 겨뤄보고 싶네요.



Ryan Brytten
 (영국, 15세)





Rick Davis
(영국, 35세,
화물기 화물책임자)

“자국 항공기로 최고의 공연을 펼치는 모습이 아름답다”

지금 이 순간,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팀이 아닐까요? 블랙이글의 전문성에 놀랐고, 한국의 항공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거듭날 잠재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국산 항공기를 활용해 이렇게 수준높은 공연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KAT
(영국, 35세,
GSS사 B-747기장)

“같은 조종사로서도 믿기 힘든 테크닉”


정말이지 블랙이글의 기량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제가 조종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이죠. 아시아에 이런 훌륭한 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시아 쪽을 방문한다면 한국부터 둘러볼 겁니다!




Jeroen/Lenny
(네덜란드, 31세/32세, 조종사)

“T-50은 꼭 타보고 싶은 항공기”

우리는 F-16을 운용하는데, T-50도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팀의 도장 디자인도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블랙이글스의 디자인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기체는 F-16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타보고 싶은 항공기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멋진 모습 기대합니다!



영국 하늘 장식한 빅찬 감동과 환희의 순간들...



공군 역사에 큰 획이 그어졌습니다. 영국 하늘에서 블랙이글이 보여준 날갯짓은 공연 그 이상의 공연이었습니다. T-50과 대한민국 공군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린 것이죠. 세계를 무대로 세일즈하고 있는 T-50의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블랙이글은 여러 빛깔 눈을 가진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들에게 보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었으며,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포 2세대들은 부모님의 조국을 블랙이글과 함께 기억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했던 용사들에게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있는 젊음이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블랙이글의 화려했던 국제 에어쇼 데뷔무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2012년 여름, 블랙이글이 영국 하늘에 그린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그것을 본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영국 이송을 위한 동체 분해 시작 (5월 11일)

001



국제에어쇼는 6월부터 7월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이를 위한 공군의 준비는 5월초부터 시작되었다. T-50B를 지구 반대편 영국으로 옮겨 놓아야 했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 공군이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해 공중급유를 활용한 이동을 고려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었지만, 공중급유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여러 기착지를 경유해야 하고, 많은 나라의 영공을 드나들어야 하는 문제 역시 풀기가 쉽지 않았다. 공군과 방위사업청이 마지막으로 내어놓은 답은 T-50B를 분해해 운송하는 방법이었다. 그사이 블랙이글 조종사들은 1전투비행단으로 이동해 T-50 훈련기로 에어쇼 훈련에 돌입했다.

01. 영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분해되고 있는 블랙이글 T-50B 항공기의 모습
02. T-50으로 훈련중인 블랙이글 팀원들

선발대 현지 협조 (6월 20일)

예비기 1대를 포함한 총 9대의 T-50B가 모부대가 위치한 대한민국 원주(공군 제8전투비행단)를 떠나 지구반대편 영국까지 옮겨졌다. 공군과 KAI, 대한통운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수송작전을 펼쳤다. 항공기의 엔진 및 주날개를 분해하여 포장했고, 영국 맨체스터 공항까지 총 4회에 걸쳐 공로를 통해 이동했다. 이후에 영국공군 리밍기지로 한 차례 이동을 더 거쳤으며, 리밍기지에서는 T-50B를 재조립해 시험비행과 수락비행을 실시했다. 블랙이글이 영국 하늘을 누빌 준비를 갖추는데는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노력이 필요했다. 영국에서의 첫 비행은 리밍지에서 와딩턴 기지까지 전개하는 임무였다. 타국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비행인 만큼, 영국 관계기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꼼꼼한 협조가 필요했다. 후발대가 영국 히드로 공항을 향해 오고 있는 사이에 선발대는 리밍/와딩턴/페어포드/판보로 공항의 관련기관들을 방문해 블랙이글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했다.

01. 영국으로 이동되어 재조립 준비중인 부품들
02. 영국공군 회의중인 블랙이글 해외 에어쇼팀 통제관 박은성 대령(진/공사 38)과 심규용 대위(공사 51)



002

영국 상공에서의 첫 비행 (6월 25일)

003



드디어 영국 상공에서의 첫 비행이 시작되었다. 영국 북쪽에 위치한 요크셔주에서 중부지역의 링컨 주로 비행하는 동안, 블랙이글 편대는 스카버로우 해안, 요크민스터 대성당 등 영국의 명승고적지를 거쳤다. 전통이 살아 숨쉬는 영국땅에 대한민국 공군이 감격적인 첫인사를 건네는 순간이었다. 청명한 날씨속에 펼쳐진 깔끔한 처녀비행이 앞으로 펼쳐질 영국에서의 화려한 순간들을 예고하고 있었다.

01. 요크(York)시 상공을 비행하는 블랙이글
02. 조종석에서 바라본 블랙이글 비행장면

와딩턴 에어쇼 Waddington International Air Show (6월 30~7월 1일)

블랙이글은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와딩턴 에어쇼에서 역사상 첫 해외공연을 선보였다. 와딩턴 에어쇼는 영국공군이 주관하는 에어쇼 중 가장 큰 행사다. 블랙이글의 첫 공연은 성공적이었고, 완벽했다. 수많은 관중들도 기립박수를 치며 원더풀! 판타스틱을 연발했다. 블랙이글은 해외에서의 첫 에어쇼에서 '최고의 에어쇼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뜨거운 반응은 인터넷 공간으로도 이어져서, 블랙이글 페이스북 페이지는 전 세계 관람객들이 새롭게 가입해 글을 올렸으며, 비행기와 에어쇼 관련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블랙이글에 대한 찬사들로 가득찼다. 국내외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방송3사를 비롯한 유수의 언론들이 블랙이글의 이야기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BBC, ITV와 CNN 등의 외신매체들도 블랙이글을 앵다투어 보도했다. 예상밖의 성과와 관심에 블랙이글은 더욱 고무되었고, 팀원들은 남은 에어쇼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01. 와딩턴 에어쇼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블랙이글

004

RIAT(Royal International Air Tattoo) 한인 2세 초청이벤트 / 베테랑 이벤트 (7월 7~8일)



와딩턴 에어쇼에서의 성공적인 데뷔를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른 블랙이글은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열린 RIAT(Royal International Air Tattoo) 에어쇼에 참가했다. RIAT 에어쇼는 영국 왕실이 주관하는 영국 최고의 에어쇼다. RIAT에서의 블랙이글 공연은 와딩턴 때보다 더 특별했다. 에어쇼 첫날에는 재영교포들이, 둘째날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방문해 에어쇼를 감상하고 블랙이글 조종사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한인 2세인 어린이들은 이야기로만 들었던 부모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날아온 에어쇼팀이 거침없이 하늘에서 기동을 펼치는 것을 보며 신기해했고, 이주 1세대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수십년 동안의 고된 타지생활을 한순간에 보상받았다는 느낌이었으리라. 자신들의 헌신을 통해 지켜낸 대한민국이 훌륭하게 발전한 모습에 6·25전쟁 참전 영국군 용사들도 눈시울을 적셨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속의 강국으로 성장해 이렇게 훌륭한 에어쇼팀을 해외에까지 보내 위용을 떨치는 장면을 목도하면서 차오르는 감동... 그것은 6·25전쟁 참전 베테랑이 아니면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 진행된 RIAT 에어쇼는 그들에게도, 블랙이글에게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았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누군가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웠다.

- 01. 한인 2세 초청이벤트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 02. 각각 공군정비사와 육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Denis Grogan(좌), Tom Clough(우)

005

RIAT '최고의 에어쇼팀' 등극 (7월 8일)

연이은 쾌거였다. 블랙이글은 와딩턴 에어쇼에 이어 RIAT에서도 최고의 에어쇼팀으로 인정받는 기쁨을 토했다. 특히 RIAT에서는 '시범비행 최우수상'과 '인기상' 두 개 부문을 석권했다. 비행 최우수상은 1983~1989년 RIAT의 후견인이었던 요르단의 前 국왕 고(故) 후세인을 기념하는 상으로, 에어쇼 기간 중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팀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비행운영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블랙이글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인기상은 RIAT를 후원하는 1,397명의 항공군사 마니아들이 에어쇼 기간 중 최고의 공중기동을 선보인 팀에게 주는 상이다. 블랙이글은 실력과 인기를 동시에 입증하면서 두 번째 국제 에어쇼 무대에서 이미 세계 최고의 에어쇼팀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 01. RIAT 에어쇼에서 블랙이글 대대장 김영화 중령(43세, 공사 41기)이 시상자인 영국공군후원협회(RAF Charitable Trust Enterprises) 예산지원부장 David Higham으로부터 「The 'As the Crows Flies' Trophy」를 받고 있다.
- 02. RIAT 에어쇼에서 「The King Hussein Memorial Sword」를 수상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 조종사들이 시상자인 요르단 왕자 Faisal 공군 중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006



판보로 에어쇼 (7월 9~15일)

블랙이글은 영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제48회 판보로 국제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에 참가했다. 판보로 에어쇼는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로, 올해에는 전세계 42개국에서 105대의 항공기가 참가했다. 또한 금년은 영국 여왕 즉위 60주년이며, 2012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25만여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에어쇼 행사장을 찾았다. 안타깝게도 판보로 에어쇼는 영국항공기 이외에는 팀단위의 에어쇼를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블랙이글은 단기기동만을 선보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관객들에게 T-50의 우수성과 블랙이글의 뛰어난 조종실력을 과시하는데는 블랙이글 1대만으로도 충분했다.



01

01. 판보로 에어쇼에서 블랙이글이 단기기동을 펼쳐 보이고 있다.

007

귀국 환영행사 (7월 18일)

27일간의 공식일정을 모두 마친 블랙이글은 7월 18일, 대한민국으로 금의환향했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은 임무요원들의 무사귀환과 국위선양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직접 성남공항을 찾았다. 행사에는 블랙이글 대원의 가족들과 공군애호단체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뜨겁게 맞이해주었다.



01

01.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이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블랙이글 대대장 김영화 중령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008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블랙이글 활약상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블랙이글 에어쇼 커튼콜

curtain call

최고의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낸 최고의 배우와 스태프를 소개한다

각본에 따라 말과 동작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공연을 우리는 연극이라고 부른다. 연극이 다른 형태의 공연들보다 매력적인 이유는 짜여진 각본은 있지만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공연 때마다 다른 느낌으로 관객들을 만나기 때문이다. 블랙이글은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인 하늘을 배경으로 연극을 펼치는 팀이다. 올 여름 블랙이글이 영국하늘에서 펼친 공연은 '걸작' 중의 '걸작'이었다. 걸작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최고의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던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어본다.

중령 김영화_대대장 : 공연을 책임지는 '연출가'
"조화로운 에어쇼를 위해 항상 기본과 원칙을 중심으로"



공군지 독자 여러분! 블랙이글 대대장 김영화 중령입니다. 먼저 블랙이글을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저는 저의 역할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행은 물론이고 음향이나 내레이션의 중요성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율을 통해 조화로운 에어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비행을, 그것도 특수비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본과 원칙에 바탕을 두어 임무수행을 했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첫 번째 국제 에어쇼 데뷔무대에서 패거리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타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 때문에 구성원들간의 불협화음을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저와 조종사 그리고 지원요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대대장으로서 정말 고맙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임무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솔로 역할을 맡고 있는 홍순홍 소령과 노남선 소령(진)이 멋지게 태극문양을 그려주었던 일입니다. 기상상태로 인하여 로우 쇼(Low Show)로 진행하던 중에 운 좋게도 날씨가 좋아지면서, 영국 상공에 태극문양을 그릴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고, 하이 쇼(High Show)로의 전환을 조언했습니다. 두 조종사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영국 상공에서 태극이 그려지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소령 홍순홍_조종사 : 하늘을 가르는 '주연배우'
"영국 상공에 태극을 그린 남자"



영국 상공에 하트와 태극을 그린 남자! 블랙이글에서 가장 박진감 넘치는 기동과 달달한 로맨스를 동시에 맡고 있는 홍순홍 소령입니다. 저는 청주 출신으로 블랙이글 최초의 학사장교 출신 조종사입니다. 그만큼 뛰어났던 거죠^^ 농담이구요, 이번 에어쇼에서도 저의 역할은 변함없이 블랙이글 팀원들과 함께 완벽한 기동을 선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변화무쌍한 날씨 탓에 기동이 하이 쇼에서 로우 쇼, 때로는 웨더쇼로 변화하는 것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RIAT에서의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구름이 많아서 로우 쇼로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로우 쇼의 기동에는 거대한 태극문양을 그리는 태극기동이 없습니다. 영국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그릴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쉬워하는 찰나, 변화무쌍한 영국의 날씨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구름이 걷혔던 것이죠. 지상 통제 중이던 대대장님이 "태극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우리 조종사들은 T-50B의 우수한 성능을 믿고 저고도에서 급상승하여 솔로 No.2 노남선 소령(진)과 커다란 구름 사이에서 태극을 그렸습니다. 우리 블랙이글 멤버들이 보고 싶어하던 태극을 그렸다는 것과 영국 상공에 우리 대한민국 국기를 보여준 것은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대위 심규용_조종사 : 무대를 기다리는 '신인배우'
"후방석에서 태극기만 들어도 행복해"



저는 블랙이글에 새롭게 선발되어 전환훈련을 받고 있는 조종사입니다. 9월말 데뷔를 목표로 후방석에 탑승해 특수비행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출장 선발대 요원으로 남들보다 먼저 출발했고, 3일 동안 세 개의 기지, 2,500km에 달하는 거리를 육로로 이동하며 블랙이글이 한 달 동안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자들과 협조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7월 5일 런던 사보이호텔에서 있었던 블랙이글 리셉션이었습니다. 블랙이글을 대표해 블랙이글과 T-50 항공기를 소개하는 영문 발표를 했는데, 정말 많이 떨리고 긴장되었습니다. RIAT 에어쇼에서는 이착륙 때 관객들에게 태극기를 보여주기 위해 후방석에 앉아 태극기를 펼쳐 보여주는 역할을 맡았는데, 허리에 쥐가 날뻔한 고통을 참으면서도 대한민국을 더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맘 풀리며 참았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같은 임무를 맡았던 동기 김원희 대위가 허리를 만지는 모습을 보며 서로 쓴웃음을 지어 보였죠^^

대위 이우영_정비중대장 : 완벽한 공연을 지원하는 '무대감독'
"블랙이글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주연"

8비 239정비중대장으로서 블랙이글의 지상정비지원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영국 전개를 위한 수리부속 및 장비 등의 물자류 식별과 준비를 하였고 이에 대한 현지 기지간 총 지상이동 계획(인원/물자)을 수립해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임무수행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정비요소(정비사 및 정비물자)의 적시 적절한 이동 및 준비였는데, 비행계획에 맞춰 사전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비계획 발생 등을 예측하여 소요산출을 해야 정상스케줄의 비행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RIAT에서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고, 레드애로우팀은 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블랙이글은 비행에 나섰고, 우수한 편대기동을 선보이며 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비행 후 조종사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이, 우리 정비팀은 비를 맞으면서도 묵묵하게 정비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작업을 한다는 것이 힘들 법도 했는데, 우리 정비팀 요원들이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신이 나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정이 북받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블랙이글 정비팀은 최고다. 주연과 조연은 없다. 블랙이글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다."



**중위 신린 통역장교 : 해외로케 현지섭외
“통역장교 생활 중 가장 자랑스러웠던 기간”**

제가 영국에 처음 갔던 건 1995년 3월이었습니다. 옥스퍼드의 한 초등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영어로 인사도 제대로 못할 때였어요. 그냥 한국식으로 허리를 구부려서 공손히 인사했어요. 말도 못하고 얼굴색도 다르다고 놀림을 받아도 그저 웃어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9년 동안 영국에서 공부했어요.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를 다니던 중에 공군통역장교회를 알게 되었고, 내가 가진 능력을 국가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쓰고 싶다는 생각에 공군통역장교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저는 블랙이글팀을 대표하는 입과 귀의 역할을 맡았죠. 영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힘들었던 어린시절이 떠오르더군요. 우리팀에게는 그런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더 동분서주하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물론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우리팀이 영국에서 에어쇼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현지협조가 필요했고, 또 제가 필요했으니까요. 리셉션 지원, 관제업무 지원, 기상업무 지원, 통제부서 연락 등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눈코 뜰새 없이 일했죠. 미국식 영어와 영국 영어가 조금 다르거든요.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영국에서 생활했던 제가 있었기 때문에 팀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웃음) 제가 태극마크를 달고 영국 영어를 구사하니까 영국인들이 신기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구요. 통역장교로서의 역할이 참 뿌듯했습니다.



**대위 크리스 탐슨 영국공군 연락장교 : 해외로케 현지진행
“내가 코리아 뉴스 스타”**

저는 블랙이글팀의 영국 일정 전반을 지원한 영국공군 연락장교 크리스 탐슨 대위입니다. 리밍에서 와딩턴, RIAT 에어쇼가 열린 페어포드, 판보로까지 한 달 동안 블랙이글과 함께했죠. 블랙이글이 영국에서 멋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같은 팀이라는 생각으로 비행스케줄, 기상점검, 배차, 취식 등 어떤 부분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함께 지낸지 2주가 넘어가니까 정말 한팀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태극기와 블랙이글 패치를 달고 다녔습니다.(웃음) 아참, 저는 한국 언론에 가장 많이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벌써 뉴스 스타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웃음)

※ 크리스 탐슨 대위는 블랙이글의 공식 첫 해외 에어쇼 데뷔무대였던 와딩턴 에어쇼 직후, 우리 언론들이 앞다투어 소식을 전할 때 블랙이글 공연에 대한 감상평을 인터뷰한 바 있다.



**소령 김권희 8비 정훈공보실장 : 공연의 감동을 더욱 크게 알리는 ‘홍보팀장’
“홍보 잘되면 밤 12시부터 업무시작해도 피곤한줄 몰라”**

이번 국제 에어쇼에서 공보담당을 맡았던 김권희 소령입니다. 우리 공군의 역사적인 순간을 알리고 기록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한국과의 시차 때문에 밤 12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비밀비재했죠. 한국이 업무를 시작하는 오전 8시가 영국에서는 밤 12시였기 때문이었죠.(웃음) 블랙이글의 활약상을 내 손으로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린다는 것은 정말 뜻깊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상사 편보현 항공촬영 : 포토그래퍼
“블랙이글의 역사를 찍는 공중촬영 전문가”**

블랙이글이 펼치는 다이내믹한 기동을 순간포착하는 남자. 편보현 상사입니다. 저는 블랙이글 사진촬영담당으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거수일투족은 물론이고, 실제 에어쇼에서도 후방석에 탑승해 사진을 찍습니다. 이번 영국 에어쇼에서는 해외 에어쇼의 기록사진 촬영과 더불어 홍보용 사진, 영상촬영을 맡았습니다. 블랙이글의 화려한 특수비행을 사진으로 담아내기 위해 후방석에 함께 탑승해 촬영하는데, 조종사도 아닌 제가 블랙이글의 기동을 이겨내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편대내에 탑승해 촬영하는 것은 중력가속도와 좁은 시야 때문에 뷰파인더를 들여다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가장 좋은 촬영포인트를 찾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각 포지션에 번갈아 탑승해보며 실험과 연구과정을 거쳤습니다. 짚곳은 영국 날씨 때문에 계획의 절반정도 밖에는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제가 원하는 사진을 한 컷, 한 컷 잡아낼 때의 기쁨도 커지는 것이겠죠? 공중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파인더의 아름다운 장면들을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에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위 최동훈_내레이터
“관객과 직접 호흡하는 블랙이글의 목소리”

블랙이글의 내레이터를 맡고 있는 최동훈 소위입니다. 내레이터라고 여자가 아닙니다.(웃음) 내레이터는 꽃에 물을 주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사 때는 익숙하지 않은 장비와 여건이라서 더욱 집중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국제 에어쇼이기 때문에 영어로 내레이션을 진행해야 하는 점도 어려운 부분이었죠. 에어쇼는 눈과 귀, 가슴으로 함께 느끼는 공감각적인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음악과 설명을 곁들인 내레이션을 통해 눈앞에서 펼쳐지는 감동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관객들의 감동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팀의 에어쇼를 처음 보는 외국 관람객들이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음악 선정과 내레이션 기법 등에 신경을 썼습니다. 내레이션과 더불어 해외 에어쇼팀과의 교류지원도 많아 대외홍보에도 힘을 썼습니다. 총장님이 RIAT에 방문하셨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직접 박수를 유도했는데 일제히 기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레이터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팀 블랙이글이 좋아하는 레드애로우팀을 실제로 만났을 때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위 이창규_군의원
“블랙이글 사인 대필 사건의 진실은?”



한 달간의 해외출장 기간 중 블랙이글 팀원들의 건강을 책임진 군의원 이창규 대위입니다. 출장기간이 워낙 길다보니, 약품들을 많이 챙겨 갔는데, 출장장에서 제가 메고 온 약품 박스를 보고 다들 놀라시더군요.(웃음) 영국 일정동안 50여명에 달하는 팀원들을 보살피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타국에서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죠? 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저는 주임무 이외에도 많은 임무를 수행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사인 대필 사건입니다. 군의관의 임무도 있지만, 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홍보부스에서 홍보물을 함께 나누어 주고 있었죠. 그런데 복장이 조종복이다보니, 많은 외국인들이 저를 블랙이글 조종사로 오해하고 사인을 요청하더라구요, 조종사분들은 비행 때문에 안계셨거든요. 그분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제가 대신 사인을 해주었습니다.(웃음) 뿐만 아니라 부족한 인력에 보탬이 되고자 팀원들 도시락 나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행사에는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었죠. 짧은 기간 중에 많은 성과를 내서 팀원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번 출장기간 중에 제가 가장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웃음)

대위 박정혜_예산담당
“꼼꼼한 예산업무로 팀원들 도와”

공군본부 예산처 소속 박정혜 대위입니다. 국제 에어쇼에 관리장교를 모집한다는 문서를 보고 영국행을 지원했습니다. 생도 때부터 블랙이글을 봐왔고 좋아했던지라 꼭 이 임무를 맡고 싶었습니다. 역할은 영국에서의 인원수송, 장비수송, 숙식 등에 관련된 예산 및 계약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부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현지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애로점도 많았지만,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듭니다. 블랙이글 소속은 아니지만, 영국 영공에 태극기가 그려질 때 벅찬 감동을 받았고 와딩턴, RIAT 에어쇼 모두에서 큰 상을 수상했을 때의 감동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중사 신재한_관제사
“블랙이글 하늘길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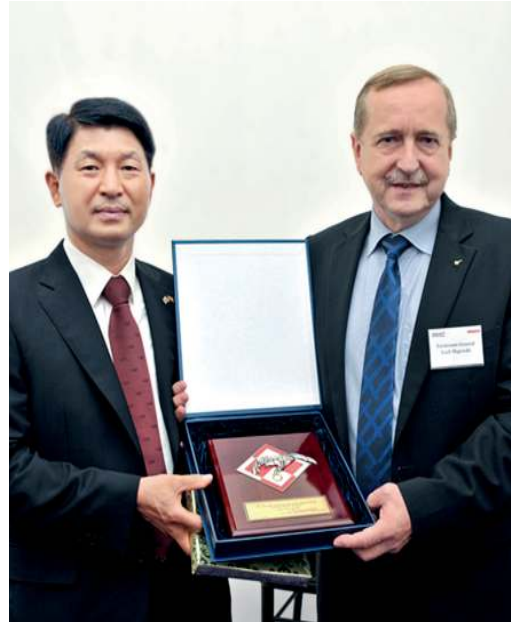


이번에 제가 맡았던 역할은 블랙이글과 현지 관제기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안전운항, 비정상 상황을 대비한 협조였습니다. 한국과 영국 간 관제절차와 공역체계가 다르고, 사용 언어와 용어가 상이했기 때문에 블랙이글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는 단시간 내에 모든 내용을 영어로 파악하고 암기해야 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끝나서 정말 기쁩니다.

포토프레임@AF

영국 · 캐나다 군사외교

참모총장은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영국과 캐나다를 방문해 해외 군사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해외출장은 우방국인 영국 · 캐나다와의 우호증진 및 방산 · 군수협력 강화, 국산항공기 수출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참모총장은 출장기간 중 리아트(RIAT) 국제 에어쇼 현장을 찾아 연이은 수상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블랙이글 팀원들을 일일이 격려했습니다.



제15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참모총장은 7월 5일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제15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참모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래의 전쟁은 항공우주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공군은 유사시 전쟁 승리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군이 연합·합동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공군 지휘관 회의 및 업무분석 회의

참모총장은 7월 2일 공군 지휘관 회의 및 전반기 업무분석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이날 참모총장은 조종사에 대한 적시 정보 브리핑과 실질적인 안보교육을 강조했으며, “내가 근무하는 시간에 적의 도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초상화는 말한다

‘나를 잊지 마세요’



알렉스 퀴렐(Alex Querel)이 전화번호부를 활용해 만든 초상화들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SF 소설의 거장, 레이 브래드버리(Ray Bradbury)의 작품 ‘화씨 451도’에는 책이 좋아 그 책의 내용을 모두 외우는 책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책을 외운 순간부터 이름 대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저는 플라톤의 ‘국가’입니다.”, “저는 버니언의 ‘천로역정’입니다.”, “저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그 자신이 한 권의 책이 된 책 사람들... 그들을 보고 있다면, 책을 선택한 그의 취향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외운 책을 암송함으로써 드러나는 그 자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싶어 하는 바람이 느껴져서 마치 그들 각자의 초상을 보는 듯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그린 그림, 초상화. 초상화는 사실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우리와 아주 친숙한 그림이다. 역사를 따져 봐도 고대 이집트의 벽화를 그 기원으로 볼 만큼 오랜 전통도 가졌다. 그리고 그 긴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그 대상과 의미, 표현방식도 꾸준히 달라져 왔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성인들, 또 왕이나 군주만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지만 점차 귀족계층으로, 초상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부유층으로 그 범위가 넓어져 이제는 누구나 거리의 화가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한 장의 초상화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며 초상화의 의미도 부와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에서 한 사람, 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 표현양식 역시 화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과장된 표현에서 점차 인물을 오랜시간 관찰해 사실에 가깝게 그리는 방식으로 바뀌어 왔다.(하지만 주문 제작인 경우 너무 정직하게 그려선 안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진의 발명과 보급은 초상화를 우리의 삶에서 한층 멀어지게 했다. 그런 만큼 현대미술 작가들은 인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전통적인 초상화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저마다의 초상화를 선보이고 있다.

몇 해 전에는 알렉스 퀴렐(Alex Querel)이라는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의 작가가 완성한 초상화 시리즈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를 모았다. 겉모양만 보면 전통적인 초상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초상화는 일반적인 캔버스가 아닌 두꺼운 전화번호부 위에 새겨져 있다. 아인슈타인, 프랭크 시나트라, 비틀즈의 링고 스타, 미스터 빈, 오바마 미국 대통령처럼 누구나 알만한 유명인사가 그 작품의 주인공들이다. 그의 작업과정을 살펴보면 이렇다. 제일 먼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의 이름이 들어가는 페이지를 펼쳐 놓고 그 인물의 사진을 관찰해 그 위에 밑그림을 그린 다음 칼로 한 페이지씩 오려내며 입체감 있게 인물의 형상을 조각한다. 이때 전화번호부의 검은 글자와 흰색 배경은 자연스럽게 명암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이렇게 완성된 모양에 투명 아크릴로 페이지를 고정시키는 작업까지 마치면 작품 완성. 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2주 정도이다.

알렉스 퀴렐은 십여 년 전부터 이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해마다 새로 업데이트된 전화번호부가 나오면서 버려지는 전화번호부를 보는 순간 이 작품에 대한 영감이 떠올라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의 작품은 사진을 보고 작업을 함으로써 오늘날 사진이 완벽하게 차지해버린 자리를 다시 초상화로 되돌리는 한편, 버려지는 전화번호부를 재활용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나와 관계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무표정하게 담긴 전화번호부에 표정을 부여하고, 그저 몇 줄의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한 사람을 개성을 가진 특별한 한 사람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무미건조한 현대인의 초상에 활기를 불어넣는 작품처럼 여겨진다.

회화, 조각, 디자인, 건축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오가며 작업을 하는 독일 작가 토비아스 레베르거(Tobias Rehberger).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기도 한 그가 만들어낸 초상화에서는 사람의 형상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만의 초상화를 선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꽃병 초상이다. 이 작품은 그가 자신의 친구들인 안나, 토마스, 코지마, 로산나, 바벨, 카타리나, 루디거, 사빈, 캐롤라, 크리스틴의 초상으로 예술가들에게 그들의 이미지에서 떠오르는 꽃병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친구들에게 각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꽃을 정하게 해서 그 꽃병에 꽃을 꽂아 한 사람의 초상을 완성한 것이다.

토비아스 레베르거의 초상화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의 이미지와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자신과 타인이 생각하는 한 인물의 조화와 차이를 담아내고 꽃이 시간에 따라 피고 지고 시들어가는 상황까지 반영해서 순간순간 달라지는 초상의 이미지를 드러내 초상화라는 장르에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여자친구들에게 각각 침대를 디자인하게 해서 그 디자인에 따라 만들어 전시하는가 하면 자신이 좋아하던 과거의 인물들, 그러니까 가수 에디트 피아프(Edith Piaf)와 작가 카를 발렌틴(Karl Valentine), 패션 디자이너 루디 건릭(Rudi Gernreich)이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 주목해 그날의 빛의 밝기를 전시 공간 안에 만들어 그들의 집단 초상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는 작가 혼자서 초상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그때의 상황, 시간, 공간까지 끌어들여 함께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공동의 초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996년 서른여덟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쿠바 출신의 작가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Felix Gonzalez-Torres)의 초상은 어떤가. 짧지만 강렬했던 삶과 작품으로 현대미술의 아이콘이라는 신화적 존재로 여

겨지는 그인 만큼 그가 표현해낸 초상 역시 오래도록 우리의 기억에 남을 만하다. 그는 연인 로스 레이콕(Ross Laycock)이 1991년 세상을 떠나자 그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사탕을 전시장 한쪽에 쌓아 놓는 것으로 연인의 초상을 완성했다. 그리고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그 사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줄어든 만큼 다시 채워 넣는 과정을 전시 기간 내내 반복함으로써 소멸과 생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떠올리게 했다. 병을 앓으며 조금씩 사라지다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버린 연인(소멸)을 사탕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연인(생성)을 사탕을 채워 넣음으로써 드러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인 로스에 대한 기억을 자기 자신만이 간직하는 게 아니라 사탕을 가지고 간 관람객들 모두가 로스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몸은 떠났지만 영원히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연인을 그는 꿈꾸었던 것이다. 그는 이 작품 이후 또 다른 형태의 초상화를 탄생시켰는데 그것은 전시 공간의 벽 위쪽에 띠처럼 기다랗게 텍스트를 적어 넣는 방법이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겪는 개인적인 중요한 사건들과 그가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시간의 순서와는 무관하게 그 개인이 느끼는 중요도에 따라 배치해 놓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 작품을 설치하는 설명서에서 기본적인 설치 기준을 제시한 뒤 작품을 소유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사건이나 추억을 넣거나 뺄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초상 화임을 밝히고 있다.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므로 작품도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인 것이다. 또한 그런 이유로 지금 본 그의 초상화는 어쩌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초상화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존재의 한계와 영속성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초상화를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지도'라고 표현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초상화를 그 사람을 대신하는 어떤 것으로 여겼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담겨 있다고 믿었으니 그만큼 적절한 표현도 없으리란 생각이다. 현대미술 작가들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변화해가는 초상화. 하지만 그런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기억'에 대한 것이다. 짧기만 한 인간의 삶을 생각해보면 때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영원히 누군가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초상화를 탄생시켰고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긴 해도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그 근본만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나를 잊지 마세요.', 누군가의 초상화를 마주할 때마다 그 간절한 마음을 한 번쯤 들여다보게 된다. **AF**



곤잘레스-토레스가 세상을 떠난 연인을 사탕으로 형상화한 초상



토비아스 레베르거가 만든 꽃병 초상



곤잘레스-토레스가 만든 텍스트 초상화



블록버스터를 보는 즐거움



지금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 장병이 있다면, 최대한 8월로 잡길 바란다. 앞으로 몇 년간 돌아올 수 없는 풍경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8월에는 아직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과 한국형 블록버스터 <연가시>가 개봉중일 것이고, 전지현과 김혜수가 한 화면에 나오는 영화 <도둑들>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공군이 주인공인 <R2B : 리턴 투 베이스>도 상영한다. 그리고 영화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기대를 얻고 있는 <다크나이트 라이즈>도 상영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2008년 개봉한 영화 <다크나이트>의 후속작이자 배트맨 3부작의 마지막 편인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개봉 2주 전부터 예매율 1위를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 휴가 중 아예 하루 잡아서 영화관에 있으면 배트맨과 스파이더맨, 전지현과 김혜수, 그리고 공군의 전투기가 63빌딩을 휘감는 모습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아마 앞으로 몇 년간 이런 풍경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무슨 영화를 볼지, 아예 영화를 볼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다. 하지만 올해 여름 개봉하는 작품들같은 블록버스터는 단지 영화라기보다는 몇 년에 한 번 보기 힘든 구경거리다. 지난 봄에 개봉한 <어벤져스>는 속편이 개봉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아이언맨과 헐크가 뉴욕의 빌딩들을 누비며 외계인과 싸우는 광경을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영화의 최종 시리즈인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말할 것도 없다.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영화관에서 볼 기회는 이번 여름이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의미다. 후에 TV로 보면 된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영화의 50분가량을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었다. 아이맥스 영화란 인간이 눈에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스크린으로 상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맥스 카메라는 당연히

그래서, 요즘 영화를 본다는 것, 특히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것은 영화를 감상하는 것 이전에 거대한 이벤트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 좋은 스토리가 있는 영화는 모든 나라에서 1년에 몇 편씩이라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블록버스터는 헐리웃에서도 많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올 뿐이다.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최신 영화관에서 몇 년에 한 번, 전세계에 단 한 편 밖에 없는 영화를 전세계 수억의 인구가 동시에 관람한다. 이런 경험을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다크나이트 라이즈>같은 작품을 극장에서 본다는 것은 훗날 자신이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고 자랑할만한 일로 남을지도 모른다.

특히 한국에서 영화관의 의미는 점점 더 영화만 보는 장소를 넘어 도시에 서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오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남녀의 데이트를 "영화보고 차마시고 식사하고"라 설명하는 한 CF처럼, 영화 관람은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트 코스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모임 때도 영화 관람은 모두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이벤트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난 사람들은 영화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품물이나 식당, 또는 위락시설 등을 즐긴다. 최근에는 영화관측에서 이런 관객들을 위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기도 한다. 영화 관람중에 먹을 수 있도록 대형 피자를 팔기도 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관이나 영화 속에 나오는 진동이나 바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4DX관도 생겼다. 모든 영화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와 그것을 상영하는 영화관은 단지 감상이 아니라 먹고 즐기는 이벤트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주말에 도시를 빠져나가 여행을 가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부담이 된다. 비용도 비용일 뿐만 아니라 월요일에 다시 출근할



아이맥스 상영관에 최적화돼 있다. 또한 거미줄을 타며 뉴욕의 고층 건물들 사이를 오가는 스파이더맨은 3D 입체 영상으로 봐야 재미있다. <R2B : 리턴 투 베이스>는 공군 전투기가 서울 하늘에서 곡예에 가까운 비행을 선보이는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런 영상을 TV에서 방영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영화의 볼거리는 포기한 채 이야기만 이해하겠다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경우 입장권 가격이 더 비싼 아이맥스 상영관부터 매진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정가운데 자리부터 예매가 되기 시작했다. 아이맥스 상영관의 큰 화면을 제대로 보고, 블록버스터 영화의 엄청난 사운드를 느끼려면 정가운데 자리가 가장 좋기 때문이다. 관객들은 이미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할지 알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작품을 영화관의 정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다.

생각을 하면 일요일 낮에는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화는 비는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오락이다. 그리고 올 여름 개봉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는 그 오락 중 최고의 재미를 선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작품들이다.

그러니 만약 8월에 휴가를 나간다면 하루나 이틀쯤은 영화관을 중심으로 휴가 계획을 짜보는 것은 어떨까. 영화관은 태양이 이글거리는 날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아무런 문제없이 즐길 수 있고, 영화 전후에는 주변 시설에서 여유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평일에 즐기는 휴가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큼지막한 팝콘을 사서 마음대로 먹고, 친구나 연인과 함께 볼 때면 영화관 주변의 시설들을 이용하여 실컷 놀 수도 있을 것이다. 여름에 블록버스터 영화를 본다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것과 같다. **AF**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씁쓸하게,
뮤지컬 <라카지>**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휴양도시 상트로페즈의 전설적인 클럽 '라카지오폴'에 게이 부부 조지와 앨빈,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하는 아들 장미셸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조지는 클럽 '라카지오폴'의 주인이며 앨빈은 공연마다 기립 박수를 이끌어내는 '라카지오폴'의 전설적인 가수이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 장미셸의 폭탄선언으로 집안은 발칵 뒤집힌다. 바로 애인 앤과의 결혼발표! 하지만 앤의 아버지는 극보수 정치인이어서 허락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로, 그리고 전설적인 가수로 평생을 살아온 앨빈에게 찾아온 인생 최대의 난관이 한 편의 뮤지컬로 만들어졌다.

특히 클럽이라는 무대에 맞게 화려하게 펼쳐지는 군무는 이번 뮤지컬의 하이라이트이다. 세계 유명 뮤지컬 시상식에서 안무상을 휩쓸었을 정도로 기존의 뮤지컬에서는 보지 못했던 색다른 비주얼을 제공했다는 평가이다.

엄마는 능청스러운 배우 정성화가, 아빠는 두 말이 필요 없는 뮤지컬계의 흥행수표 남경주가 맡았다. 2AM의 이창민, 전수경, 천호진 등 주연급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흥미로운 줄거리를 살아있는 연기로 채웠다. '발로는 장단을, 가슴으로는 눈물과 웃음을 보였다'는 외신들의 평을 직접 체험해보자.

- 기간 : 9월 4일까지
- 장소 : 서울 LG아트센터
- 홈페이지 : <http://www.lacage.co.kr>
- 가격 : R 11만 / S 8만 / A 6만원



Preview

**올 여름을 '홀랑~'
컬투의 <홀랑적쇼>**

예매순위 7년 연속 상위 랭크, 매년 전국 8만명 이상 관람, 싸운 연인이 따로 들어갔다가 싸운 것도 잊고 나오는 유쾌 만점 개그 스테디셀러가 올 여름에도 변함없이 찾아왔다. 이번 여름의 컨셉은 바로 '물'. 물의 낙하속도를 이용한 워터스크린이 멀리 계곡에 나가지 않아도 공연장에 있는 내내 시원한 웃음을 선사한다. 여기에 휘황찬란한 레이저쇼와 라이브밴드의 생생한 음악은 인기 가수의 콘서트를 방불케 한다.

매년 조기매진을 기록하는 특별우대석도 눈 여겨 볼만 하다. 연인석의 원조답게 프로포즈 연인석은 물론, 남성관객들의 솔로탈출을 장려하는 남성전용 부킹석, 20년 동안 한결같이 컬투를 지지해준 여성팬들을 위한 여성우대석까지 컬투쇼다운 익살스런 좌석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별석을 예매하는 관객들에게는 이름만큼이나 특별한 선물과 이벤트가 제공된다. 1분을 웃으면 30분 운동한 것과 같다는 과학적 분석이 있다. 한여름, 이젠 '땀' 대신 '웃음'을 계획해보자.

- 기간 : 8월 19일까지
- 장소 : 서울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
- 홈페이지 : <http://cult2show.blog.me>
- 가격 : R석 8만 8천 / S석·부킹석 7만 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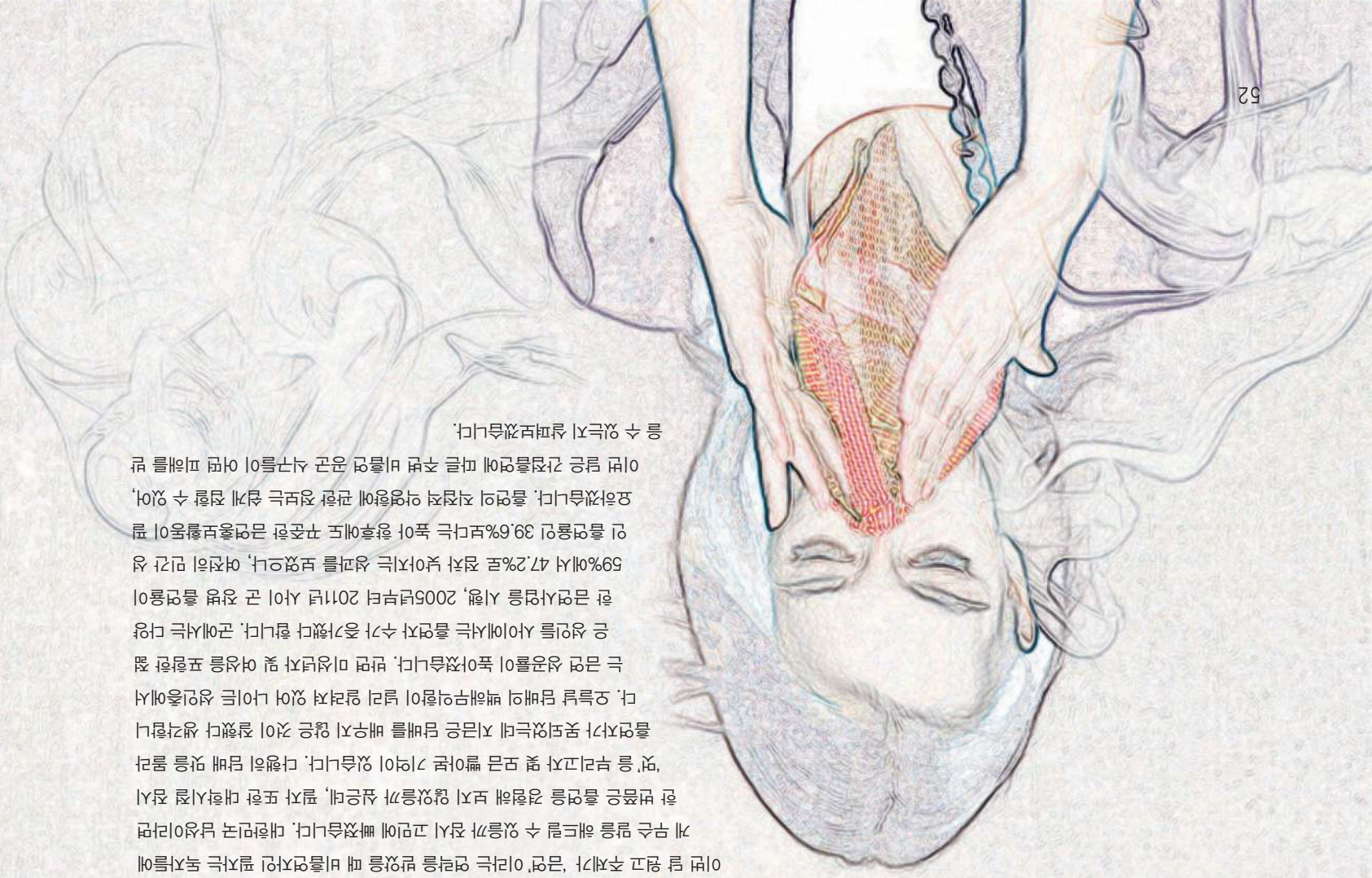
간접흡연의 위험성

* Health Diary

不患人之不己知 患其不能也(불환인지불기지 환기불능야)

* 독자기고

Opinion



이런 림 원고 주제가, '근면'이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비를연자인 필자는 독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드릴 수 있을까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넘쳐나면 한 번쯤은 림연을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필자 또한 대학시절 잠시 '멋'을 부리고자 몇 모금 뺏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담배 맛을 몰라 림연자가 못되었는데 지금은 담배를 배우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생각한다. 오죽하면 담배의 백해무익함이 널리 알려져 있어 나이가 들수록 성인층에서 는 림연 성공률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미성년자 및 여성을 포함한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는 림연자 수가 증가했다 합니다. 군에서는 다양한 림연사업을 시행, 2005년부터 2011년 사이 군 장병 림연율이 59%에서 47.2%로 점차 낮아지는 성과를 보였으나, 여전히 민간 성 인 림연율은 39.6%로 아직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군에서는 림연 프로그램의 직접적 영향에 관한 정교한 통계 접할 수 없어, 이번 림연은 간접적 영향에 따라 큰 변화 없이 군 구성원들이 어떤 면에서든 림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접적 영향의 의미



간접흡연이란



문헌 보고에 따르면 흡연을 할 때 들이키는 연기에는 각종 독성물질이 들어 있는데, 많게는 5,000여종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으며, 그중 40여가지는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것은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이며, 직접 흡입하면 혈관을 따라 운반되어 우리 몸

의 모든 장기에 치명적 피해를 줍니다. 반면 간접흡연은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010년 세계 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직접흡연에 의한 사망자 수는 매년 510만명에 달하며, 간접흡연에 의한 사망자 수도 60만명으로 결코 적지 않다 합니다. 다시 말해 비흡연자라도 담배연기를 맡았다면 이미 공기 중 담배로 인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이기에, 비흡연자들 또한 담배로 인한 건강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접흡연의 위험성



담배연기는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주류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나오는 생담배연기로 나뉩니다. 생담배연기는 필터를 통해 유해물질이 여과되지 않아 인체위해성이 더 큼니다. 문제는 비흡연자가 마시는 생담배연기가 간접흡연을 할 때 흡입하는 전체 담배연기의 80%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생담배연기 속에는 주류연기보다 니코틴이 21배나 더 많으며 이외에도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같은 유해물질이 15~50배 더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흡연자

의 배우자는 비흡연자의 배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 정도 높고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이 50%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암연구소는 간접흡연을 암 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A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직접흡연자는 자신이 피우는 담배연기와 다른 흡연자 때문에 흡입하는 연기에 같이 노출되어 질환발생 위험을 더욱 높이며, 비흡연자는 다른 흡연자 때문에 흡입하는 연기에 같이 노출되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 종류와 개비 수, 실내면적, 환기 정도에 따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신체피해



간접흡연은 다양한 신체부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곳 하나 손상되지 않는 부위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흡연이 심혈관질환이나 폐암 등을 일으킨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간접흡연의 위험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간접흡연 때문에 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 마이애미대 연구팀이 비흡연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혈액 속 니코틴 부산물인 코티닌 양을 분석했더니 이 성분이 많은 사람일수록 청력에 문제를 보였습니다. 간접흡연으로 몸 속에 들어온 코티닌이 귀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 귀속 기관의 산소를 부족하게 만든 것이 원인이라 합니다. 그 외 정신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미국 하버드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가정 아이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발병 위험이 5.9%, 학습장애 위험은 8.2%로 나타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비흡연가정 어린이의 발병 위험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연구진은 미국에서 나타나는 정신장애 원인 중 25%를 차지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니코틴이 혈당 조절을 실패하도록 만들어 합병증 위험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또 아토피 피부염 발생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끝맺으며



담배는 1년생 식물의 하나로, 500년 전 아메리카 인디인들의 종교의식 또는 치료용으로 사용되었고, 유럽에는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 소개되었다 합니다. 이후 세계적으로 퍼지다가 20세기 세계대전 중 군인들에게 담배를 무상으로 보급

하면서 흡연인구는 오늘날 크게 급증하였습니다. 인간에게 담배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한 가지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수많은 발암물질을 포함한 해로운 기호식품이라는 것입니다. 흡연자 본인은 흡연을 통해 안정감 및 진정효과를 얻겠지만, 주변 비흡연자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흡연자는 실외나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하며, 재떨이는 모두 치워야 합니다. 지금도 흡연을 하는 공군 식구들이 있다면 간접흡연은 '담배로 저지르는 살인'이라 인식하시고 본인과 주변 동료의 건강을 위해 이 시간 후로 담배를 끊었으면 합니다. 부디 많은 공군 식구들이 '금연작전'에 성공하길 기원하며 이번 달 글을 마치겠습니다. **AF**



글. 중령 황용연 | 공군작전사령부 군수계획과장

不患人之不己知 患其不能也

불 환 인 지 불 기 지 환 기 불 능 야

대학, 중용, 맹자와 함께 유교 4대 경전으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논어는 대략 2500년 전 쯤에 쓰여진 고전으로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중 군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 볼 만한 구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논어의 헌문 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子曰(자왈) 不患人之不己知(불환인지불기지)오 患其不能也(환기불능야)니라.”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는 뜻이다.

이 말을 한 공자는 춘추전국시대 노나라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으며, 노년이 될 때까지 많은 세월동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중국 전역을 돌며 자신의 철학을 유세하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켜 줄 군주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공자와 공자의 사상은 자신의 욕심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대부분의 군주들과 공자를 시기하는 주변의 신하들에 의하여 한낱 비현실적 이상주의로 폄하되어 철저히 외면되고 말았으며, 설사 등용이 되더라도 보잘것없는 벼슬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공자는 그들이 자신의 사상과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더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하였고, 학문 연구와 제자양성에 그의 열과 성을 다하였다. 그 결과 그의 철학은 동양의 핵심 사상이 되었으며 공자는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이 되었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의 동료들이나 상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자 노력한다. 그러한 모습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그 노력의 결과는 본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늘 본인의 의지대로만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때로는 그러한 자신의 노력이나 성과가 주변의 사람들과 조직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대부분은 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지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스스로 의기소침해 지기도 한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공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위인이다. 하지만, 그런 공자조차도 모든 일들이 그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았으며, 본인의 바람대로 살기는커녕 늘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함께하며 평생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뒤돌아보고 자신에게 더욱더 충실하여 결국 그것들을 이겨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공자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하고, 그 원인을 나보다는 남에게서 찾으려 하며, 작은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너무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군 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不患人之不己知 患其不能也”의 문구를 마음속에 새겨보며 항상 자기 자신의 미흡함을 돌아보고 자신과 군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 아마도 그것이 2500년 전 공자가 논어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AF**

여름보다 더 뜨거운 사나이들



글. 소령 이석진 | 제5전술공수비행단 항공기정비대장

올해는 유난히 덥다고 한다. 30도를 넘나드는 한여름 더위에, 특히 지열이 피어오르는 활주로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다.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일하는 항공기 정비사에게 있어서 여름은 가장 싫어할 수 밖에 없는 계절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은 C-130, CN-235 등 대형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어, 이글루 형태가 아닌 천장이 없는 리베트먼트에 노천주기를 하고 있다. 때문에, 여름철 더위에 가장 노출이 심한 기지 중의 하나이다.

태양의 직사광선이 정비사들의 몸을 인정사정없이 달구고, 한낮의 폭염으로 인해 프라이팬처럼 달궈진 항공기 내부의 열기란 가히 설명하기 어렵다. 한여름 오후 햇볕에 하루 종일 주차되어 있던 차에 막 올라 탔을 때의 느낌이라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혹서기인 7~8월에는 주기장과 활주로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곤 한다.

항공기 정비 업무는 이런 뜨거운 햇볕과 폭염에도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 정비 현장은 더위와 추위, 육체적 고달픔에 더해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 정비를 담당하는 대대장으로서 이러한 고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지상에서 차량에 의해 견인 중인 항공기에 탑승한 적이 있었다. 내부가 어찌나 덥던지 몇 분 만에 온 몸이 땀으로 젖어버렸고, 사우나와 같은 열기 때문에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다. 항공기가 이동하는 불과 몇 백 미터의 거리가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다. 다시는 사서 고생하지 말아야 하는 생각까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고 인내하며 정비임무를 수행하는 대대 정비사들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다.

사실, 야외에서는 단 30분만 작업해도 군화 속 양말은 물론, 내의까지 모두 땀으로 젖어 불쾌감이 증폭되곤 한다. 그러나 우리 정비사들은 하루 5~6시간이 넘는 야외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게 그을린 얼굴 때문에 유난히 도드라지는 하얀 치아를 드러낸 채 씨익 웃어가며 정비작업에 헌신하는 항공기 정비사들은 한여름 땀보다 더 뜨거운 공군의 영웅들이라고 생각한다. 정비사들은 날씨를 탓하지 않는다. 어떠한 악기상이 예보되어도, 기상은 그저 참고사항일 뿐, 묵묵히 현장으로 나아간다. 하루 종일 따가운 직사광선 속에서, 찜통 같은 항공기 안에서, 지글지글 끓어 오르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임무완수를 위해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며 일하는 정비사들의 송고한 모습은, 영화 속에서 외계인과 고군분투하며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슈퍼히어로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초인적인 영웅 그 자체였다. 이들과 동고동락하는 항공기 정비대대장으로서,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오늘 아침도 하루 업무를 힘차게 시작한다. **AF**



이철수
저



박범신
저

그림이 많은 책

어린 시절 처음으로 접한 책들은 그림이 많은 책이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글자는 서너 줄밖에 없었고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담겨져 있는 그야말로 그림책이었지요. 세월은 지났지만 9개월이 지난 딸아이가 가지고 노는(?) 책들 역시 그림이 많습니다. 과거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림보다는 사진이 더 많은 것이죠.

어찌 되었든 그림책은 글을 잘 모르거나 글 읽기를 싫어하는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책과 가까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들입니다. 물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은 추측하건대 글을 읽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은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책과 가까워져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기 위한 어른들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욕심 때문인지 자라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책을 멀리하게 됩니다. 너무 일찍부터 책이란 녀석을 알아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일찍부터 책읽기를 시작한 탓에 벌써 치쳐버린 것일까요?

요즘처럼 더운 여름날에 피서를 가면서 여행용 가방이나 배낭에 분위기가 있게 책 한 권 찢러 넣어 봅니다만 떠나는 길에 펼쳤던 페이지 그대로 돌아오기 일쑤죠. 또한 유명인들이 휴가를 떠나면서 가지고 가서 읽었다는 책은 서점가에서 금방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큰 맘 먹고 한 권 사보지만 끝까지 읽기도 전에 이미 책꽂이에 고이 모

셔둡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책마을> 가족 여러분께 그림이 많은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가뜰이나 더운데 종이 위에 빼곡하게 들어찬 글씨들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넓은 종이 위에 시원시원하게 펼쳐진 그림들을 보면서 책 한 권을 부담 없이 쉬엄쉬엄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는 것이죠.

『이철수의 웃는 마음』(이철수, 이다미디어, 2012)은 판화가 이철수 씨의 작품입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 잡지의 표지 뒷면에 하나의 그림과 글귀로 많은 감동을 주었던 이철수 씨의 작품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은 끝까지 않았다』(박범신, 은행나무, 2012)는 최근 영화 『은교』의 원작 소설가로 주목받은 작가가 지난해 7월 명지대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고향인 논산으로 낙향하여 쓴 일기를 모은 책입니다. 끝으로 『그래도 나는 서울이 좋다』(오영욱, 페이퍼스토리, 2012)는 그림 그리는 건축가 오영욱 씨가 서울을 여행하듯이 설명한 서울 소개문입니다. 차가운 대도시에서 따뜻한 감성을 찾아내는 작가의 시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위가 지나면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올 것입니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기에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림책들과 친구처럼 가까게 지내다보면 본격적인 가을에는 우리 <책마을> 가족 여러분 모두가 깊은 독서의 세계로 더욱 쉽게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AF**

2012 August

Vol.410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들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 □ □ □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2.5.1~2013.4.30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2012 Maneuvers of the Black Eagles

2012
August

Vol.410

P
O
S
T
C
A
R
D



1. Change Loop



2. Change Turn



3. Ro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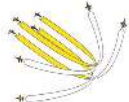
4. Bon Ton Roulle



5. Rainfall



6. Scissor Pass



7. Box Cross



8. Triple Turn



9. Go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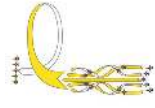
10. Heart & Cupid



11. Orchid



12. 2ship High α & Loop



13. Rollback & AB Loop



14. Taegeuk (태극)



15. Gourd Bot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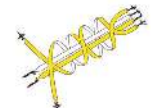
16. Cross Break



17. Inverted BUP



18. Echelon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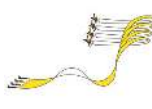
19. Double Helix



20. Snake Rolls



21. Dizzying Break



22. Twist Roll



23. Max Maneuver



24. Victory Break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월간 「공군」 8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8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